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기타(Guitar) 교수·학습을 위한 성인 학습자 인식조사 및 교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창 수

# 기타(Guitar) 교수·학습을 위한 성인 학습자 인식조사 및 교재 연구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Adult Learners and Study  
of Textbooks for Guitar Instruction & Learning

202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창 수

# 기타(Guitar) 교수·학습을 위한 성인 학습자 인식조사 및 교재 연구

지도교수 김 지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박 창 수

# 박창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정은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202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b>ABSTRACT</b>	-----	<b>V</b>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3. 연구의 제한점	-----	3
4. 선행연구	-----	3
<b>II. 기타(Guitar)의 이해</b>	-----	<b>8</b>
1. 기타의 역사와 발전	-----	8
2. 기타 구조 및 종류	-----	10
1) 기타의 구조	-----	10
2) 기타의 종류	-----	12
3. 기타 연주 주법	-----	14
1) 스트로크(stroke) 주법	-----	14
2) 아르페지오(arpeggio) 주법	-----	17
3) 리듬 및 코드 연주	-----	18
<b>III. 성인 기타(Guitar) 교육</b>	-----	<b>21</b>
1. 성인교육의 정의 및 개념	-----	21
2. 성인 학습자의 특성	-----	22
3. 성인 교육자의 자질	-----	25
4. 기타의 교육적 활용	-----	26

1) 기타 교육의 역사 -----	26
2) 기타의 선호도 및 교육적 활용도-----	28
3) 음악 교육을 통한 성인의 음악적 성장 -----	30
<b>IV. 성인 학습자 인식조사 -----</b>	<b>32</b>
1. 설문대상 및 내용 -----	32
2. 설문분석 -----	34
1) 설문자 인적 기초 자료 -----	34
2) 학습 유형별 분류 -----	36
3) 문항 분석 -----	39
3. 설문 분석 결과 -----	55
<b>V. 기타(Guitar) 교재 분석 -----</b>	<b>59</b>
1. 교재 연구의 필요성-----	59
2. 교재 분석 -----	61
1) 외형적 관점 -----	61
2) 음악적 관점 -----	64
3) 기능적 관점 -----	73
3. 교재의 비교 및 평가 -----	74
<b>VI. 결론 및 제언 -----</b>	<b>76</b>
참고문헌 -----	79
부록 1. 기타 교수·학습지도 계획-----	81
부록 2. 설문지-----	88

## 표 목 차

<표 1> 통기타(Guitar) 관련 학위 논문 -----	4
<표 2> 학습형태별 설문대상-----	32
<표 3> 설문요소의 문항별 분류 -----	33
<표 4> 나이별 분포 -----	34
<표 5> 학력별 분포 -----	35
<표 6> 직업별 분포 -----	35
<표 7> 기타 관련 참여 활동 현황 -----	36
<표 8> 학습유형별 나이 분포 -----	36
<표 9> 학습유형별 직업 분포 -----	37
<표 10> 학습유형별 관련 분야 활동 현황 -----	38
<표 11> 학습유형별 학력 분포 -----	38
<표 12> 성취수준과 관련 유의 상관 문항 -----	41
<표 13> 교육경험 문항 관련 상관관계 분석 자료 -----	42
<표 14> 선행지식 문항과 타 문항과의 상관관계 -----	43
<표 15> 학습기간과 관련 상관관계 분석 -----	44
<표 16> 기타 관련 음악지식과 타 항목간 상관관계 -----	45
<표 17> 학습기간과 유의 상관관계 -----	46
<표 18> KMO와 Bartlett의 검정-----	46
<표 19> Cronbach의 알파 계수 -----	46
<표 20> 웹 활용도 관련 음악지식과 타 문항 간 상관관계 -----	52
<표 21> 배우고 싶은 내용-----	54
<표 22> 항목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	56



<표 23> 분석 교재 목록 -----	61
<표 24> 분석 교재 목차 분석표-----	62
<표 25> 악곡 박자 및 조성 -----	65
<표 26> 코드의 종류와 코드 학습 위계 -----	66
<표 27> 리듬 학습의 위계 -----	68
<표 28> 리듬 패턴별 악곡 수록 현황 -----	69
<표 29> 스케일 분석 내용 -----	72
<표 30> 수록곡 목록 -----	73
<표 31> 분석 교재의 기능적 요소 -----	74

## 그림 목 차

[그림 1] 통기타 구조 및 명칭-----	11
[그림 2] 기타 개방현 및 지판의 음계-----	12
[그림 3] 피크 쥐는 모습과 커팅시 손바닥 닿는 부분 -----	15
[그림 4] 스트로크 자세 -----	16
[그림 5] 뮤트 상태의 다운 업 피킹 연습 -----	16
[그림 6] 아르페지오 자세와 손가락 번호 -----	17
[그림 7] 4/4, 3/4박 리듬 학습 순서 -----	18
[그림 8] 스트로크 리듬 음절 적용 예 -----	19
[그림 9] 연령에 따른 성인학습의 변화 -----	24
[그림 10] 영국의 Nexus의 악기 선호도 조사 결과-----	28
[그림 11] 분석 교재 -----	62
[그림 12] 교재 악곡 리듬 종류별 분포도 -----	71

## ABSTRACT

###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Adult Learners and Study of Textbooks for Guitar Instruction & Learning**

Park, Chang-Soo

Advisor : Prof. Ji-Hyun Kim,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Guitar is a traditional instrument that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nd is widely used in folk music and popular music.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Guitar learners, various forms of Guitar teaching and learning are taking place, including lifelong education centers at universities, various cultural cent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after-school classes. However, systematic research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Guitar, which is widely loved by the public and widely used musically, is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talize social music education according to these circumstances and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of adult Guitar learners,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Guitar learning for Guitar learners and instructors and a study of textbooks, music elements necessary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function, and suggesting systematic and effective Guitar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coustic guitar music, which started in the late 1960s, gained popularity in the 70s and grew into a genre of popular music. As a result, the Guitar became a familiar and easily accessible instrument to the public. In particular, it is a romantic instrument that evokes nostalgia and memories of youth for

the so-called 'acoustic guitar generation' who spent their school days in the 70s and 80s. It is still recognized as a popular instrument among people, and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learning.

Adults' Guitar learning should consider th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dults, and textbooks should also include content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adult learning. In general, if you look at Guitar textbooks on the market, you can see that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the basic learning process of music is focused on simple functional delivery that has been overlooked. Due to this, beginners or beginners do not receive in-depth education and cannot systematically learn th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Guitar, development of basic skills, principles of technique, principles of playing and rhythm composition, etc. The reality is that it cannot be found.

As such, it seems that a systematic study on Guitar teaching and learning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social music education so that adults can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and lead a musically prosperous life through Guitar learning.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타(Guitar)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달해온 전통악기로 포크 음악이나 대중음악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활 악기이다. 최근 기타 학습자의 증가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백화점 등 각종 문화센터, 방과후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악기이며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타의 교수·학습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회음악교육의 활성화와 성인 기타(Guitar)<sup>1)</sup>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기타 학습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기타 학습에 대한 인식조사와 교재 연구를 통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음악 요소 및 기능을 고찰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기타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통기타 음악이 70년대 들어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타는 대중들에게 친숙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특히, 70~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일명 ‘통기타 세대’로 불리는 세대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향수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의 악기이고 한류나 K-POP 등 대중음악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인기 있는 악기로 인식되어 배우고자 하는 학습 수요가 많다(김형찬, 2002).

성인들의 기타 학습은 성인의 신체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재 또한 성인 학습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기타 교재를 보면 음악의 기초적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간과된 간단한 기능적 전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초급자나 입문자의 경우 심도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해, 기본기의 발전, 기술의 원리, 주법과 리듬의 구성 원리 등을 체계적으로 익히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게 되거나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지향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김영표, 2020).

---

1) 기타(Guitar)는 통기타(Acoustic Guitar),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기타, 전자기타(Electric Guitar) 기타, 베이스 기타(Bass Guitars) 등 여러 종류의 기타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본 논문에서는 주로 통기타를 말함

이처럼 성인들이 기타 학습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음악적으로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음악교육 활성화 차원에서의 기타 교수·학습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성인 기타 학습자의 효과적 교수·학습을 위하여 기타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교재 분석을 통한 성인 기타 교수·학습의 효과적 방안 제시를 위함으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기타의 역사와 발전 과정, 기타의 구조와 기본적 연주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을 위하여 성인학습의 개념과 이론 등 성인학습 특성과 기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기타 학습자의 기타 학습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여 학습 동기, 성취수준, 음악지식 등 학습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며, 이를 통한 학습특성을 분석하고 탐구하며 성인학습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시중의 기타 교재 분석을 통하여 성인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제안한다.

연구방법으로 설문 조사는 2021년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면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분석은 통계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엑셀과 SPSS 26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교재 분석은 2021년 2월 1일 자 기준 ‘통기타교본’으로 검색한 네이버 검색 인기순위 상위 5위 교재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판매량 상위 2위 교재 중 5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sup>2)</sup>

2) 네이버 ‘통기타교본’ 검색 교재는 총 1,274권으로 ‘인기순위’ 상위 5위 교재 중 1위 교재는 핑거스타일 교재로 다른 교재와 비교가 곤란하여 제외, 교보문고 ‘통기타교본’ 검색은 총 250권으로 ‘판매순위’ 1, 2위 교재를 선정, 2위 교재는 네이버 4위 교재와 같음(2010. 2.1자 기준)  
 [네이버][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y&fbm=1&ie=utf8&query=%ED%86%B5%EA%B8%B0%ED%83%80%EA%B5%90%EB%B3%B8](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y&fbm=1&ie=utf8&query=%ED%86%B5%EA%B8%B0%ED%83%80%EA%B5%90%EB%B3%B8)  
 [교보문고]<https://search.kyobobook.co.kr/web/search?vPstrKeyWord=%25ED%2586%25B5>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유효한 설문 응답자는 총 127명으로, 이 중 중·장년 성인이 110명, 학생은 17명이다. 설문대상자는 임의로 선택하였고, 인원이 다수가 아니며, 지역적 국한을 고려할 때 설문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재 분석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도서 전문 사이트인 교보문고 인기순위 상위 5위 이내의 교재만 선정함으로써 교재 전체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기도 및 판매순위로 선정함에 따라 교재가 지향하는 독자층의 구분과 학습 성취수준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선정되어 성취수준별 분석과 연주 장르별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상위 5위 이내 통기타 교재로 기타 학습자의 많은 선택을 받는 교재로서의 분석의 의미는 있다 하겠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클래식 기타와 전자기타의 연주가 아닌 통기타 연주 위주의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학습자 설문 조사와 교수·학습 방안도 주로 통기타 연주로 제한적이다.

### 4. 선행연구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키워드로 ‘통기타’를 검색하면, 국내 학술논문 17편과 학위논문 37편, 단행본 421권과 연구보고서 3편이 검색된다.<sup>3)</sup> 국내 학술논문 중 제목에 ‘통기타’가 포함된 것은 6편, 통기타 대중음악 문화와 관련된 논문 3편, 심리치료 2편, 기술 관련 논문 1편이 있다.

학위논문 중 제목에 ‘통기타’가 포함된 논문은 총 7편이다. 관련 키워드로 ‘Guitar’, ‘기타 교본’, ‘기타 교재’, ‘어쿠스틱’, ‘포크 기타’, ‘기타 연주’, ‘기타 학습’으로 검색한 논문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sup>4)</sup>

---

%25EA%25B8%25B0%25ED%2583%2580%25EA%25B5%2590%25EB%25B3%25B8&orderClick=LAG

3) 2021년 4월 20일 기준 검색 결과

4) <표 1>은 클래식 기타 및 전자기타와 베이스 기타에 국한된 연구는 제외하였고, 기타 교수·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논문도 통기타 음악문화와 구조, 연주 기능에 관련된 논문은 포함하였음

<표 1> 기타(Guitar) 관련 학위논문

주제	저자	논	문	명	기관
	장지웅	초등 가창 곡 반주를 위한 교사용 통기타 교재개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6. 석사
교재 연구	박해수	기타 교본의 분석을 통한 합주 수업 설계 : 제재 곡의 편곡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석사
	김영표	기타 연주입문자를 위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 : 기타 연주입문자를 위한 교재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석사
	나주성	고등학생 기악 실기교육에 있어서 Guitar 지도에 관한 연구: Classic Guitar의 발달과정과 지도법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석사
	이병극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서의 기타 지도 방안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석사
지도안	강효진	기타(guitar)를 활용한 기악 활동 지도 방안연구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석사
작성 및 연구	임태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효과적인 기악수업 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 기타(Guitar) 수업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석사
	권경희	협동 학습 모형을 적용한 기타(Guitar) 수업 지도 방안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석사
	박재완	민요를 활용한 통기타 교수-학습지도 안 연구:본조 아리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 교육대학원 2019. 석사
	유화용	STEAM 교육을 적용한 통기타 수업지도안 개발 연구 :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석사
	서주형	중학교 자유 학년제 예술 체육 활동의 통기타 수업을 위한 메이커 교육 지도 방안연구 : TMSI모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석사
	송문섭	기타의 教育的 活用을 위한 研究 : 高等學校 音樂 修業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석사
교육 활용	엄미경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Guitar 학습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석사
	김은옥	포크 기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 : 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석사



	김 정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기타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석사
	홍정효	기타(Guitar)를 활용한 유아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석사
연주법	신빈	Solo Guitar를 위한 Finger style 기법 연구 : Kotaro Oshio의 Finger style 기법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2. 석사
	최우림	토미 에마누엘(Tommy Emmanuel)의 핑거스타일 연주기법 분석 연구:앨범 《Only》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석사
	김형찬	한국 초기 통기타 음악의 사적 연구:1975년까지 사회사적 흐름과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2002. 석사
	박민정	기타 연주 활동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석사
심리·문화	이용로	치료적 기타 그룹연주 활동이 남자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19. 석사
	김영수	통기타 동호회 활동 참여가 몰입경험과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8. 석사
	곽태선	그룹 기타(Guitar) 활동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2020. 석사
	김성해	탑-플레이트의 두께 변화에 따른 어쿠스틱 기타의 음향학적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6. 석사
구조	장성태	피크의 재질과 두께에 따른 어쿠스틱 기타의 음향적 특성의 변화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2016. 석사
기타	류칭웨이	기타 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 학습 인터랙션 패턴 제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석사
	정종택	기타 연주에 있어 나타나는 부상과 예방에 관한 연구 : 어쿠스틱, 일렉기타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석사

위 연구들을 연주 주제별로 분류하면, 교재 연구, 지도안 작성 및 연구, 교육 활용, 연주법, 심리·문화, 구조·기타로 구분될 수 있다.

교재 연구를 보면, 장지웅(2016)은 초등학교 고학년 가창 수업에서 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기타 교재를 개발하였고, 박해수(2018)는 기타 교본 분석을 통한 중학교 음

악수업의 설계를 위한 교육적 요소를 창출하여 합주 편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김영표(2020)는 기타 교재 분석을 통한 초보 기타 입문자의 지도 및 교수법 연구를 하였다.

기타를 활용한 지도안 작성과 연구를 보면, 나주성(1999)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기악학습지도 안 개발 연구를 하였으며, 이병극(2008)은 초등학교 3~6학년 특기 적성교육에서의 기타 지도 방안연구로 학습지도 안을 제사하였고, 강효진(2010)은 기타를 통한 기악 활동 지도 방안연구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엄태우(2012)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악수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기악 수업 방안연구로 중학교 1학년 기타수업을 중심으로 기악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경희(201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협동 학습 모형을 적용한 기타수업 지도 방안연구로 음악과 협동 학습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박재완(2019)은 본조 아리랑을 중심으로 민요를 활용한 통기타 교수-학습지도 안 연구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통기타를 통해 민요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 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유화용(2020)은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STEAM 교육을 적용한 통기타 수업지도안 개발 연구로 통기타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서주형(202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TMSI 모형을 중심으로 체육 활동의 통기타 수업을 위한 메이커 교육 지도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로, 송문섭(2000)은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기타를 활용한 수업안을 적용하여 수업의 교육적 검증을 위하여 음악 성취도 측정검사로 기타를 활용한 수업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엄미경(2001)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Guitar 학습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타 학습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악교육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고, 김은옥(2002)은 포크 기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로 고등학교의 음악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김정(2002)은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 기타 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타의 학습효과가 음악성의 계발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건전한 생활습관으로 학력 증진에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성취도를 고찰하였다. 홍정효(2008)는 기타(Guitar)를 활용한 유아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를 통하여 유아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활동을 포함하는 유아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고 기타를 활용한 유아 음악교육에 관한 기초적 탐구를 하였다.

연주법에 관한 연구로는 신빈(2012)의 Kotaro Oshio의 핑거스타일(Finger style) 기법

중심으로 한 Solo Guitar를 위한 핑거스타일 기법 연구가 있고, 최우림(2018)의 토미 에마 뉘엘(Tommy Emmanuel)의 핑거스타일 연주기법 분석 연구가 있다.

통기타 문화와 통기타 음악을 통한 심리·문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김형찬(2002)은 한국 초기 통기타 음악의 사적 연구를 통하여 1975년까지 사회사적 흐름과 작가를 중심으로 통기타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사료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통기타 문화의 태동과 변천 등을 설명하였으며, 박민정(2017)은 기타 연주 활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서 기타 연주 활동이 자기효능감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용로(2019)는 치료적 기타 그룹연주 활동이 남자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음악치료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김영수(2018)는 통기타 동호회 활동 참여가 몰입경험과 여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설문 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하였고, 곽태선(2020)은 그룹 기타(Guitar) 활동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타활동이 효과적인 중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기타의 구조 등에 관한 연구로 김성해(2006)는 어쿠스틱 기타의 구조적 연구로 상판 두께에 따른 음향학적 연구를 하였고, 장성태(2016)는 피크 두께와 재질에 따른 음향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류칭웨이(2018)는 기타 학습 도구에 관한 연구로 초보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정리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패턴을 정리하여 기타 학습 도구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연구로 정종택(2021)은 기타 연주에 있어 나타나는 부상과 예방에 관한 연구로 기타 연주에서 사용되는 근육, 그리고 기타 연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리 몸의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부상을 예방하고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는 기타 교육 관련 교재 연구 및 지도안 작성, 연주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 중 일반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법 연구는 김영표(2020)의 연구가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 관련 연구는 일선 학교 수업에서 기타 학습 적용을 통한 지도안과 교재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타 교수·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장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수법과 학습지도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II. 기타(Guitar)의 이해

### 1. 기타(Guitar)의 역사와 발전

기타 발달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타(Guitar)의 어원은 이집트어의 키타라(kithara) 혹은 앓시리아어의 케타라(Ketharah)에서 왔으며, 수많은 지중해의 언어에서 볼 수 있다. 즉, 아라비아어 쿠이트라(kuitra), 칼데아어 세타라(chetharah), 그리스어 키타라(Kithara)<sup>5)</sup> 혹은 키타리스(Kitha-ris), 라틴어의 키타라(cithara)가 있고 (서우석 외 역, 1998, p. 94), 지금은 영어의 기타(Guitar), 프랑스어의 기타르(Guitare), 독일어의 기타레(Gitarre), 이탈리아어의 키타라(Chitarra), 스페인어의 기타라(guitarra) 등으로 불린다(강효진, 2010).

기타 모양의 악기가 최초로 확인된 시점은 기원전 4,000~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의 고분벽화이며, 기원전 1,400년경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Nefer(네페르)<sup>6)</sup>와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Ud(우드)<sup>7)</sup>라는 악기부터 시작한다(송문섭, 2000). 우드(Ud)는 아랍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악기로 이 명칭은 나무(Wood)와 거북이(Tortoise)를 의미하는 말로서 그 소재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아랍권의 민속 현악기로 현재까지 전해져 연주되는 악기로 유럽 류트(Lute)<sup>8)</sup>의 직접적인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최초로 우드가 나타난 것은 6

5) Kithara(Gk.), citara(It.), Cithara(Lat.), cithare(Fr.)는 고대 그리스 발현악기로 리라(Lyre)와 비슷하나 더욱 진보된 구조이며 모양도 크다. 나무로 만든 공명통과 2개의 구부러진 팔과 횡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의 수는 5줄(B.C 8세기), 7줄(B.C 7세기), 11줄(B.C 11세기)로 늘어남(음악용어사전, 1986, p. 145).

6) Nefer, Nofre(Egypt.)[네페르, 노프로] 고대 이집트의 계란처럼 생긴 기타, 현의 수는 일정치 않다. 오늘날에는 벽화나 공예품의 회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음악용어사전, 1986, p. 505).

7) 우드(al'ūd) ud, uod, aoud(영) Ud(독) loud(불) 아랍 · 터키 · 이란의 음악에서 사용되는 발현악기. 보통 5현 구조인데 최저 현 이외는 모두 겹줄이며, G-A-d-g-c의 순열로 맞춘다. 그러나 현의 수는 4현에서 6현까지 있으며, 조현법도 4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 최고현에서는 여러 가지 음정이 되고 그 종류가 많다. 서양배(梨)를 세로로 자른 몸통에다 편평한 판자를 대고 프렛 없는 네크를 지니고 줄 감개는 뒤로 구부러져 있다. 원래 페르시아에 기원을 둔 이 악기는 10세기 이후 아라비아 음악에서는 가장 중요시 되고, 고래의 이론서 대부분이 이 악기를 기초로 음계 이론을 고찰하고 있음(음악대사전, 1986, p. 1201).

8) 류트는 서양배를 반으로 자른 듯한 모양의 공명통 있으며, 여기에 연결된 네크에 평행으로 매어진 줄을 통겨서 소리 내는 것을 특징으로 함. 조현은 16세기에 11현(최고 음 현만 단현, 그밖에는 복현으로 Gg · Cc · ff · aa · d'd' · g')의 고전적 류트가 완성되어 유럽에서 널리 사용됨. 이 류트는 아라비아의 류트(우드-al' ud)가 사라센 침공 때 스페인에 도입된 것으로서, 유럽어의 <류트>의 어간을 이루고 있는

세기 메카(Mecca)에서였다. 그때는 현이 4줄이었지만 5현, 6현이 추가되면서 개량되었다. 우드는 무어인<sup>9)</sup>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711~1492) 유럽에 도입된 것이지만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13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연주자는 한 손으로 지판 위의 현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플렉트럼(plectrum)<sup>10)</sup>을 사용하여 현을 튕겨서 연주한다(이용일 외역, 2004, p. 128).

근대 기타는 기턴(Gittern)<sup>11)</sup>에서 유래되었다. 기턴은 류트와 비슷한 작은 악기로 13세기 후반에 무어인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을 거쳐 유럽에 도입되었다. 이 악기는 15세기 동안 길게 만들어졌고 스페인에서 기턴은 비우엘라(Vihuela)<sup>12)</sup>로 변형되었고 이 비우엘라는 근대 기타의 원조가 되었고 궁정용 악기로 사용되었다. 15세기 초반에는 4줄의 복현 ‘르네상스 기타(Renaissance Guitar)’가 출현했다. 르네상스 기타는 오늘날의 기타와 유사한 비우엘라의 몸통을 기턴의 작은 크기와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습의 기타보다 작으며, 17세기 후반에는 4줄에 다섯 번째 복현이 더해졌고 이후 복현이 단현으로 되면서 연주기술이 단순화되었고, 18세기에는 옆면이 안으로 굽고 뒤판은 평평한 나무 공명기가 있는, 6현의 근대 기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근대 기타는 오늘날의 기타보다 폭이 좁고 길었다. 16세기 중엽에는 특별히 기타를 위한 곡이 작곡되었고, 후안 카를로스 아마트는 1586년에 최초의 교본 ‘기타라에스파뇨라’를 출판하였다. 100년도 안 되어 기타는 스페인에서 인기 있는 악기가 되었고 비우엘라는 서서히 사라졌다.

19세기 기타는 몸통의 폭이 넓어졌고 안쪽의 버팀대가 부채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금속

---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음. 이 류트의 모체가 된 것은 사산 왕조 때 페르시아의 바르바트(Barbat)라고 하는 악기로서, 이것이 동쪽으로 전해진 것이 비파가 되었고, 아랍·아프리카를 거쳐 서양에 전파된 것이 류트가 됨(음악대사전, 1986, pp. 411~412).

9) 711년부터 이베리아반도를 정복한 아랍계 이슬람교도의 명칭(두산백과)

10) 발현악기(撥絃樂器)의 줄을 튕기는 데 사용하는 용구. 보통 뿔·나무·플라스틱·거북껍질·상아·금속 등으로 만들며 만돌린·비파 또는 고대 그리스의 리라와 같은 악기에 쓰인다. 손가락에 끼고 뚫기는 것과 두 손가락으로 잡고 뚫기는 두 종류가 있으며 기타의 피크도 플렉트럼의 하나(두산백과)

11) 중세에 사용되던 기타의 옛 형태로 gyterne, getteron으로도 쓰며, 프랑스어로는 귀테른(guiterne), 독일어로는 쿼테르테(Quinterne), 이탈리아어로는 키타라(chitarra)·기타라(ghitarra)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현을 튕겨서 연주하며, 어떤 행사에서든지 노래와 춤을 반주하는 데 쓰였다. 150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잃어 류트에 자리를 빼앗김(위키백과)

12) 13~16세기에 스페인에서 사용되던 류트 족 악기. 몸통 뒤 판이 평평하며, 비교적 짧은 네크에다가 뒤쪽으로 구부러진 줄감개 집이 있음. 현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개 6현(5현이 복현과 1줄의 단현)으로 G.C.F.A.D.G로 조현됨. 주로 상류계급에서 애용되었으나 기타가 민속악기로 보급됨에 따라서 자취를 감춤(음악대사전, 1986, p. 831).

프렛을 목에 끼워 고정시켰고, 줄 받침은 높게 제작되었다. 이 같은 혁신은 19세기 스페인 악기 제작자였던 “Guitar의 스트라디바리”라고 불리는 안토니오 데 토레스 주라드 (Antonio De Torres Jurado, 1817~1892)에 의하여 클래식 기타의 모양과 크기 지판이 확립되었다. 현을 65cm 길이로 표준화시킨 사람 또한 토레스였다. 20세기에는 나무못으로 만든 줄 감개를 금속 나사로 바꾸고, 지판을 울림구멍까지 아래로 늘리는 등 더 많은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이용일 외 역, 2004, p. 118).

오늘날 사용하는 통기타는 어쿠스틱 기타 (Acoustic Guitar) 또는 포크 기타(Folk Guitar)로도 불리며 나무로 된 울림통에 의하여 소리를 내는 구조로 통(筒)기타로 불리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현대 어쿠스틱 Guitar의 효시는 C.F.Martin(Christian Fredrick Martin: 1796~1873 America)이 183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나자레스에 현대식 기기를 도입한 대량 생산 목적의 반자동화 공장을 건립 하면서부터이다 특히, Martin 사는 Guitar Top-plate의 Bracing 표준이 된 ‘X-Bracing 구조’를 개발하여 ‘Steel-string Guitar’의 효시를 이루었다. 특히 Martin, Guild 등의 회사는 그 들의 독창적인 비결 Sound Hole 가공 및 Bracing 기법 등을 개발시켜나갔으며 이후 Fender, Gibson 등과 같은 회사들이 전기 Guitar를 양산하여 새로운 음악적 Trend를 형성 Guitar의 혁명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학자에 의하여 Guitar의 음향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분석들을 Guitar 제작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김성해, 2006).

## 2. 기타 구조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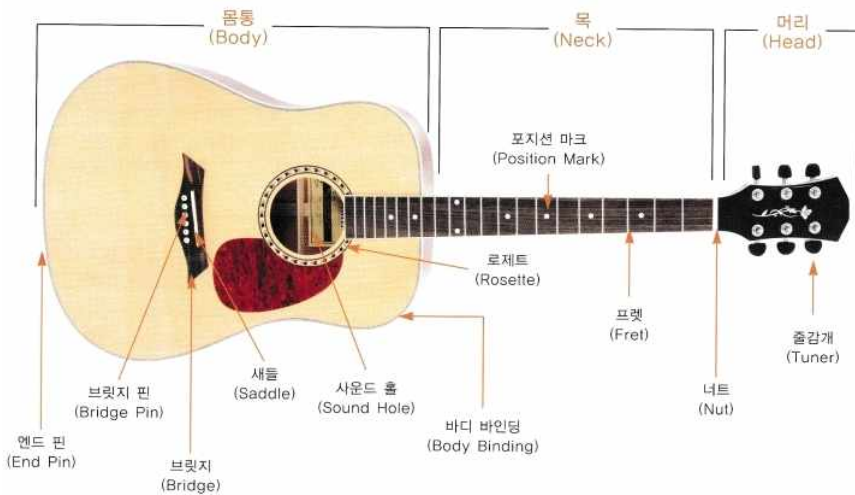
### 1) 기타의 구조

통기타의 구조는 [그림 1]<sup>13)</sup>과같이 크게 머리(Head), 목(Neck), 몸통(Body)으로 나누어지며, 넥(Neck) 쪽의 너트(Nut)와 새들(Saddle) 사이에 금속 줄을 걸어 탄현에 의한 몸통의 공명으로 소리를 발현하는 구조이다.

손이나 피크(Pick)로 현을 올리면 새들의 진동과 브릿지(Bridge) 진동을 통하여 전판에 현의 진동을 전하여 전판이 진동함으로써 기타의 음색이 결정되며, 울림통 내부 공기의

13) 통기타 폼나게 쳐봐! (2017). 아름출판사.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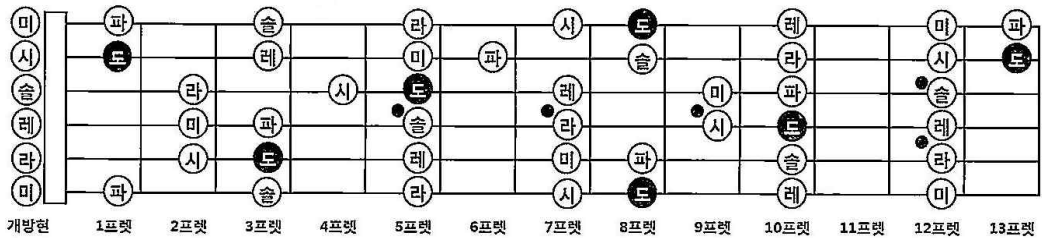
진동에 따라 후판과 측판의 진동이 이루어진다. 기타 몸통의 구조와 형태, 재질은 울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판은 스프루스(Spruce)<sup>14</sup>를 많이 사용하며, 측판 및 후판은 로즈우드(Rosewood)<sup>15</sup>, 마호가니(Mahogany)<sup>16</sup> 등을 주로 사용한다. 몸통 이외에도 실재 연주에 미치는 요소는 네크의 두께와 넓이, 네크의 결합 방식, 너트와 새들 재질과 높이, 기타 줄의 재질과 두께 등에 따라 다양하다. 현장의 길이는 보통 650mm 정도이다. 기타 줄은 보통 6개 현이 표준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줄은 라이트 게이지(Light Gage)로서 1번 현이 0.12inch(0.30mm)이고 순서대로 0.16, 0.25, 0.32, 0.42, 0.54<sup>17</sup>)이며 용도에 따라 더 가는 줄 또는 더 두꺼운 줄을 사용한다.



[그림 1] 통기타 구조 및 명칭

- 14) 가볍고 튼튼하며, 울림이 뛰어나기 때문에 통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의 악기에 많이 사용되며,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내주는 시더(Ceder)와는 달리 악기가 길이 들면서 깊고 중후한 음색을 갖게 됨 [쇼팽 용어사전]
- 15) 따뜻하고 중저음이 풍부한 소리를 냅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지판이나 넥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며 자체에 유분이 충분해 오일을 바르거나 별도의 피니쉬를 하지 않아도 됨 [쇼팽 용어사전]
- 16) 짙은 적갈색을 띠는 원목으로 앤틱 가구에 많이 사용됨. 내구성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해도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고 방충이 잘 되어 해충에도 안전함. 원목 자체에 윤기를 띠고 있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며 도장 마감 후에는 광택이 더욱 선명해지며, 가공성이 좋아 가구재 악기재 장식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쇼팽 용어사전]
- 17) 기타줄의 두께 및 재료는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상기 규격은 마틴 회사에서 생산되는 어쿠스틱 light gauge 기준임

기타의 표준 조율은 개방현의 음을 6번 현부터 E, A, D, G, B, E로 하며 각 현 간의 음정은 6번 줄과 3번 줄까지는 완전 4도와 완전 5도를 이루고, 3번 줄과 2번 줄은 장 3도, 단 6도의 관계가 된다. 이는 2번 줄의 음을 다른 현에 비하여 반음 낮게 조율하면서 발생하는 음정 관계이다.



[그림 2] 기타 개방현 및 지판의 음계

기타의 프렛(Fret)은 반음 간격으로 12 프렛은 상현주 너트에서 하현주 새들까지의 1/2 지점이 되므로 개방현 음의 한 옥타브 높은음이 된다. 따라서 기타의 지판은 개방현에서부터 12 프렛까지 한 옥타브 음이 배열되고 12현부터는 2옥타브 음이 배열되는 구조이다. [그림 2]는 기타의 표준 조율에 의한 지판의 음정을 표시한 것으로 12 프렛의 음은 개방현의 1옥타브 음이 되며, 12 프렛 위치가 현장의 1/2 위치가 된다.

## 2) 기타의 종류

기타는 크게 몸통의 형태나 현의 재질, 장르에 따라 분류하며 클래식 기타(Classic Guitar), 통기타(Acoustic Guitar), 전자기타(Electric Guitar), 베이스 기타(Bass Guitar) 등으로 구분된다. 클래식 기타는 양의 창자를 꼬아 만든 거트(Gut) 줄이나 나일론 줄을 사용하는 기타로 손으로 뜯어서 멜로디와 화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독주 악기로 많이 쓰인다. 음색이 부드럽고 금속 현보다 손가락이 덜 아프고 줄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다. 클래식 연주나 플라멩코(Flamenco), 라틴음악에 주로 사용되며, 대중음악이나 서정적 노래 반주 등에도 널리 이용된다.

전자기타(Electric Guitar)는 현에서 발생한 진동을 픽업(Pickup) 장치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악기 본체와 증폭 장치(앰프, Amplifier)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연주하는 기



타이다. 기본적인 연주 방식이나 조율 방식은 어쿠스틱 기타와 유사하지만, 전기 장치와 다양한 이펙터(Effector)를 통해 독특한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다.

베이스 기타는 보통 4개 줄을 가지고 있으나, 5현, 6현, 그 이상도 있다. 전자기타와 비슷한 구조이며, 비교적 줄이 굵고 낮은 음역대를 갖고 있다. 종류에 따라 프레시전 베이스(Precision Bass), 재즈 베이스(Jazz Bass), 스타인버거(Steinberger) 타입, 프렛 레스(Fretless Bass) 타입, 어쿠스틱 베이스(Acoustic Bass) 등이 있다. 취향에 따라 손가락, 또는 피크로 친다.

통기타는 어쿠스틱 기타 또는 포크 기타(Folk Guitar)로도 불리나 통상 통기타로 통용되며 금속 현의 울림으로 클래식 기타보다 울림이 크고 손이나 피크를 이용하여 연주한다. 스트로크 주법과 아르페지오 주법의 발달로 주로 노래 반주나 대중음악에서 필수적 악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독주나 합주로도 이용된다. 바디의 통 울림에 의하여 소리를 내지만, 최근에는 전자 장치 발달로 픽업이 장착된 통기타가 나오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활용되고 있다.

바디는 모양에 따라 드레드넛 바디(D-body, Dreadnought), 오케스트라 바디(OM-body, Orchestra), 점보 바디(J-body, Jumbo), 팔러 바디(O-body, Palar) 등이 있으며, 하이 포지션의 연주 편리성을 위한 컷 어웨이(Cut away)된 형태가 있다.

드레드넛(Dreadnought)은 1930년대 C. F. Martin이 디자인한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제작되는 어쿠스틱 기타의 바디 형태가 되었고 울림이 좋고 고 음역과 저 음역 균형이 잘 맞는 이상적인 바디의 형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형 바디는 바디의 허리선이 잘록하고 다소 작은 규격을 갖추고 있다. 드레드넛과 팔러 형의 중간 형태이며 특징도 드레드넛과 팔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스트로크 시 울림이 명료하고, 아름다워서 핑거스타일 연주에 많이 사용된다. 팔러 바디는 드레드넛보다 크기가 작고 폭이 좁다. 바디의 크기가 작아 여성 연주자들이 많이 애용한다. 울림이 비교적 작지만, 고음역의 소리가 강조되고 미세한 음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주로 핑거스타일 연주자들에게 어울린다. 점보 바디는 드레드넛보다 바디의 폭이 더 넓고 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의 울림이 더 크고 특히 중, 저음대에서의 울림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컷 어웨이 바디는 하이 포지션에서의 연주를 쉽게 하려고 바디 일부를 들어가게 하는데 이를 컷 어웨이(Cut away)라고 하며, 하이 포지션에서의 연주가 쉽지만, 바디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울림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sup>18)</sup>

### 3. 기타 연주 주법

#### 1) 스트로크(Stroke) 주법

기타의 가장 기초적인 연주법은 리듬 연주 스트로크(Stroke) 주법이며, 맨손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주로 피크를 사용하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연주하는 아르페지오(Arpeggio) 또는 핑거링(Fingering) 주법, 퍼커시브(Percussive) 주법 등이 있다. 기타의 주요 테크닉은 레가토(Legato) 주법인 해머링 온(Hammering On)<sup>19)</sup>, 풀링 오프(Pulling Off)<sup>20)</sup>, 슬라이딩(Sliding)<sup>21)</sup>, 벤딩(Bending)과 비브라토(Vibrato)<sup>22)</sup>가 있고, 하모닉스(Harmonics)<sup>23)</sup>, 글리산도(Glissando)<sup>24)</sup>, 커팅(Cutting)<sup>25)</sup>, 뮤트(Mute)<sup>26)</sup>, 피치카도(Pizzicato)<sup>27)</sup>, 트레몰로(Tremolo) 주법<sup>28)</sup>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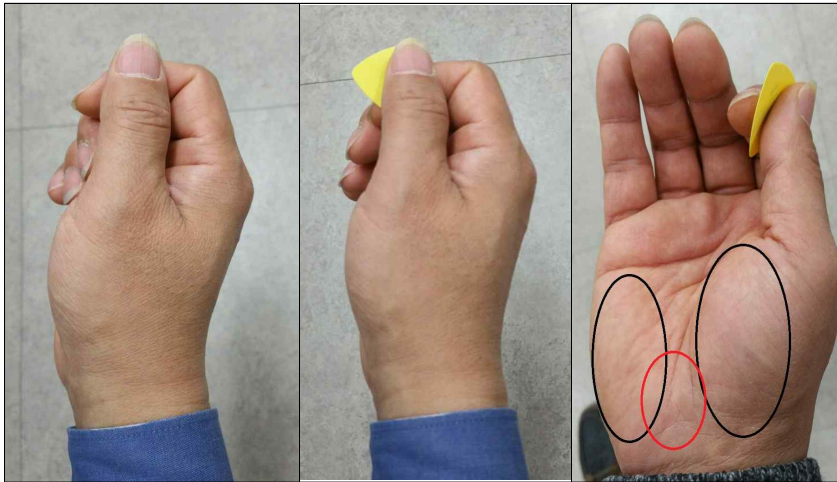
스트로크는 기타의 리듬 연주에서 핵심이 되는 것으로 먼저 피크의 숙달된 사용이 우선된다. 피크는 플랫 피크(Flat Pick)를 주로 사용하며, 손가락에 끼우는 썸 피크(Thumb Pick)와 핑거 피크(Finger Pick)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피크를 사용하여 줄을 치는 것을 피킹(Picking)이라고 하며 이 피크의 숙달된 사용이 기타 연주의 질을 좌우하는 핵

18) 세종악기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sejongmusic.net/board/board.html?code=sejongmusi\\_board5&page=1&type=v&board\\_cate=&num1=999997&num2=00000&number=3&lock=N](http://www.sejongmusic.net/board/board.html?code=sejongmusi_board5&page=1&type=v&board_cate=&num1=999997&num2=00000&number=3&lock=N) (2021. 4. 6)

- 19) '망치로 때리다'라는 뜻으로 내려고 하는 음의 낮은음을 탄현하고 줄을 해머로 두드리는 느낌으로 내려고 하는 음의 지판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듯이 줄을 때려 연주하는 기법
- 20) 해머링 온의 반대로 내려고 하는 음의 높은음을 탄현하고 줄을 잡아 뜯듯이 떼어 아래로 내려 내려고 하는 음의 지판을 눌러 연주하는 기법.
- 21) 음의 고저의 변화를 미끄러지듯 주는 기법으로 보틀(bottle)넥을 이용하기도 함
- 22) 벤딩은 현의 장력을 높여 음에 변화를 주는 의미로 초킹(choking)이라고도 하며, 비브라토는 벤딩을 한 상태로 벤딩과 원래 상태를 반복하여 음의 높이 변화를 주는 기법
- 23) 소리의 자연 배음 원리에 의한 현악기 주법으로 하모닉음이 나오는 프렛 위치에서 소리를 내어 하모닉음을 얻는 주법으로 주로 12프렛, 5프렛, 7프렛을 많이 사용
- 24) 기타 연주에서 보통 고음에서 저음으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도록 피킹하는 주법
- 25) 커팅(cutting)은 주로 리듬의 강박이나 스타카토 등으로 음을 순간 끊어서 비트를 주는 기법
- 26) 뮤트(mute)는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기타 울림을 순간 제어하여 소리를 제어하는 것이나 커팅과 뮤트의 구분이 기타에서 혼용되어 사용된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뮤트(mute)란 소리가 없는 것인데 뮤트 주법이란 맞지 않는 것으로 뮤트된 상태에서 타악기적인 소리를 내는 주법을 뮤트 주법 또는 브러싱 주법이라고 한다. 이는 오른손 바닥으로 줄을 제어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기법중 하나이므로 고고 커팅도 뮤트 또는 브러싱 주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임
- 27) 매우 짧은 음으로 끊어주는 주법
- 28) 같은 음을 빠르게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주법

심적 요소이다. 먼저 피크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크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그림 3]에서와 같이 적절하게 나오게<sup>29)</sup> 쥐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소리는 부드러우나 맑고 선명하지 못하고 너무 짧게 잡으면 소리가 둔탁하고 스트로크 소리가 거칠어진다. 연주 시 피크가 떨어지거나 돌아갈 때는 중지 손가락 끝마디로 보조를 해 주면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피크 쥐는 것은 의도적 동작 행위가 필요한 행동으로 초보 때부터 신경 써서 습관을 들여야 하며, [그림 3]과 같이 검지의 두 번째 관절부가 약 90° 정도 구부러지게 하여, 검지의 끝 관절부를 펴지 않고 약간 구부러지게 한 상태에서 피크를 살포시 얹고 엄지손가락의 도톰한 부분으로 움직이지 않게 덮는 듯 눌러 쥘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끝부분으로 힘주어 눌러 잡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엄지손가락 끝부분으로 눌러 힘을 주면 엄지손가락 관절이 굳어져 탄력 있는 스트로크가 되지 않는다. 피크를 쥐지 않는 나머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주먹을 쥐지 않고 자연스럽게 펴주는 것이 좋다.



[그림 3] 피크 쥐는 모습과 커팅 시 손바닥 닿는 부분

주먹을 쥐게 되면 오른손 손바닥이 줄에 닿도록 하는 팜 뮤트(Palm Mute)에 의한 커팅이나 뮤트 주법이 어려워진다. 또한, 멜로디 연주 시 새끼손가락이나 약지 손가락은 보조적 지렛대 역할로 기능이 크므로 처음부터 피크를 잡을 때 주먹을 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0)

29) 보통 많이 사용하는 삼각 피크의 경우 손에서 1/3~1/2로 약 10mm 정도 나오게 함이 좋다.

맨손으로 하는 스트로크는 주로 엄지손가락만으로 또는 엄지와 검지의 결합, 다운 시 엄지를 뺀 나머지 손가락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 업 할 때 엄지손가락 손톱 부위를 이용하는 등 손가락 전체를 이용하며, 피크를 이용한 선명함보다는 퍼커시브나 아르페지오를 겸한 부드럽고 화사하며 다채로운 표현에 적합한 방법이다.

깨끗하고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리듬을 치기 전에 코드 음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한 줄씩 피킹을 하면서 손가락에 의한 간섭이나 프렛에 정확하게 안 눌러진 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코드 스트러밍(Strumming)<sup>31)</sup>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지와 코드 음을 확인한다.



[그림 4] 스트로크 자세

[그림 5] 뮤트 상태의 다운 업 피킹 연습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코드를 누르는 왼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타의 울림을 통제하는 오른손의 비중도 크다.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내는 것은 전적으로 연주자의 피크 사용과 리듬 스트로크의 숙련도에 달렸다. 리듬 스트로크는 올바른 연습방법으로 숙달될 수 있으며 초보 때부터 바른 자세로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피크에 의한 스트로크 연습은 우선적으로 숙달시켜야만 하는 기능이다. 연습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자세로 손목이 안쪽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하여 기타 몸통에 거의 평행이 되게 유지하며, [그림 4]와 같이 손바닥은 줄을 스치듯 가깝게 연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바닥이 줄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연주에서 불리하고 오른손에 의한 커팅이나 뮤트 등이

30) 주먹을 쥐면 빠른 스트로크 연주 시에는 전판에 손가락이 스치는 등의 불편함이 없어 빠른 속주 시엔 주먹을 쥐기도 함

31) 스트러밍은 손가락이나 피크로 여러 줄을 훑듯이 내려치는 동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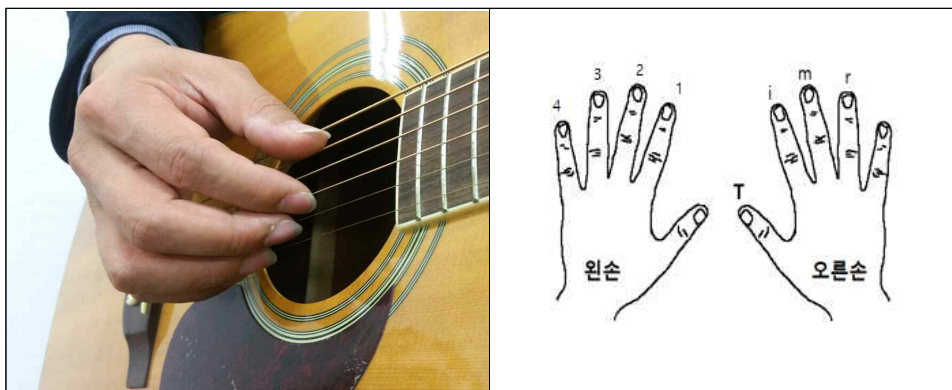
어려워진다.

둘째, 한 줄의 다운 업을 통한 피킹 연습과 줄 전체를 [그림 5]와 같이 뮤트 된 상태로 다운 업 동작을 반복하면서 기타 줄에 고른 타격음이 나오도록 줄 전체를 부드럽게 브러싱 하는 느낌으로 연습하며, 다운 피킹은 다운 시 피크 방향을 약간 상향하여 피크가 피크 가드에 스치도록 다운하며 업은 반대로 피크 방향이 약간 하향한 상태에서 피크 가드에서 출발하여 몸쪽으로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올린다. 즉, [그림 4] 화살표 방향의 궤적을 의식하면서 피크가 줄에 고른 강도로 타격이 되도록 연습하며, 손목을 손바닥 뒤집듯 빙글 돌리는 화살표 방향과 반대 방향의 궤적을 그리면서 스트로크하지 않아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기타의 공간감이 부족하여 다운 업 동작을 할 때 너무 거칠게 소리가 나면 줄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부터 헛스윙하면서 서서히 다가와서 맞춰보며 타점을 조절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셋째, 부드러우면서 탄력 있는 연주의 핵심은 스트로크 시 어깨나 팔의 움직임이 아니고 피크를 쥐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탄력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손목의 유연함에 달려 있다. 엄지손가락 끝부분으로 힘주어 피크를 누르게 되면 탄력 있는 엄지의 스냅(snap)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 2) 아르페지오(Arpeggio) 주법

아르페지오는 분산화음이라고도 하며 코드의 동시 울림이 아닌 시간에 따른 음의 순차적 울림 연주이다. 연주할 때는 손목의 힘을 빼고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연주하며 보통 손톱을 이용하여 음을 선명하게 올려준다.



[그림 6] 아르페지오 자세와 손가락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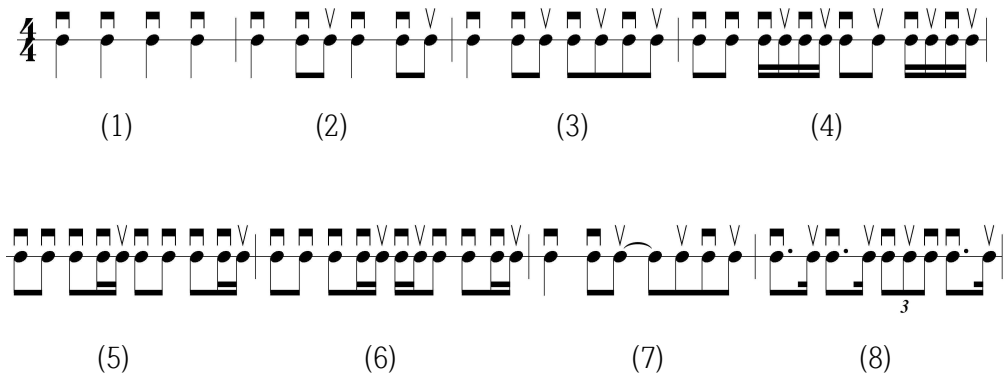
기타 연주에서는 오른손 손톱은 잘 다듬고 적당하게 길러서 아르페지오나 리듬 스트로크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손톱이 약하거나 자주 부러질 때는 손톱 영양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해주시기도 한다. 손가락 번호와 기호는 [그림 6]과 같이 코드를 누르는 왼손가락은 검지부터 1, 2, 3, 4번으로 부르고 오른 손가락은 주로 멜로디를 뜯거나 탄현 하며, 일반적으로 엄지(Thumb)는 4, 5, 6번 줄, 검지(index finger)는 3번 줄, 중지(middle finger)는 2번 줄, 약지(ring finger)는 1번 줄을 담당하나 이것은 코드나 연주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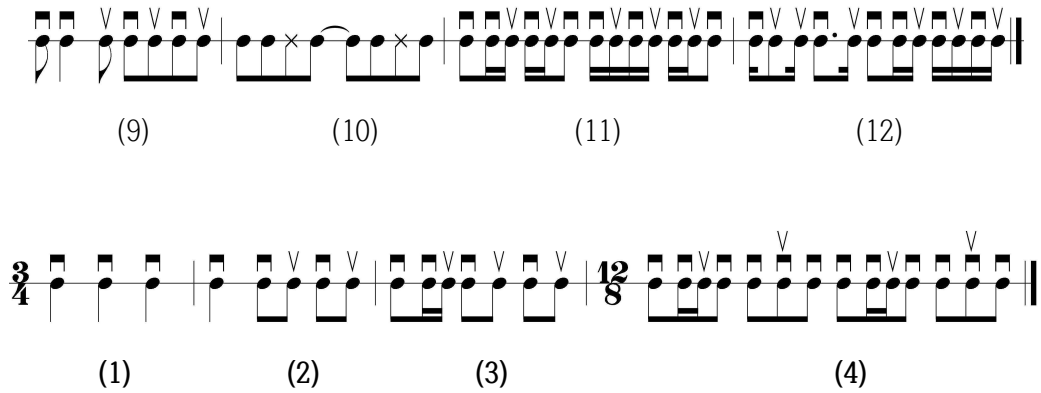
### 3) 리듬 및 코드 연주

#### ① 리듬 패턴

리듬 패턴은 박속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지는 규칙적 또는 불규칙한 분할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연주의 핵심이다. 초보 학습자는 정박자 리듬 계통으로 리듬감과 박자를 익히고 차츰 불규칙한 분할 리듬이나 엇박자 리듬을 연습하도록 한다. 이는 코드 학습순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기타만으로 곡의 다양한 리듬 표현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타 고유 특성에 맞는 기법과 연주로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연주가 필요하다. 초보자는 먼저 4박자나 2박자 계통의 4분음표 4비트 다운(∩) 리듬부터 익히고 [그림 7]에서와 같이 8비트, 16비트 순으로 단계적으로 익혀서 리듬감을 기르도록 한다. [그림 7]은 단계적 리듬 학습을 위하여 리듬 패턴 학습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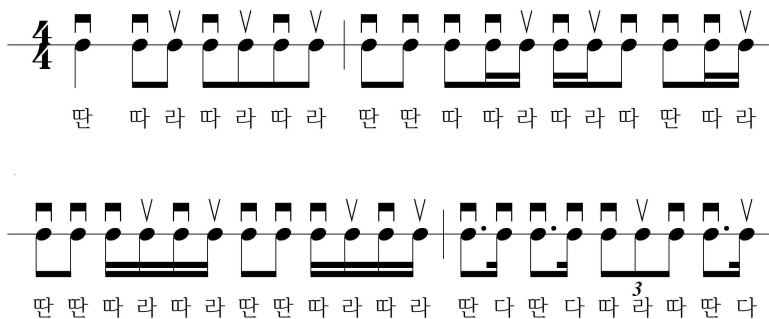




[그림 7] 4/4, 3/4박 리듬 학습순서<sup>32)</sup>

## ② 리듬 음절 활용

기타의 리듬 지도에 리듬 음절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악곡의 주요 리듬 및 스트로크 패턴을 노래하듯 들려주고 학습자는 따라하도록 하며, 손뼉을 치거나 손 박자 또는 발 박자를 곁들여서 리듬의 특징과 박자를 익힌다. 그리고 기타로 리듬 패턴을 연주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여 학습한 후 리듬이 익숙해지면 실제 곡을 연주한다. 반복 연습을 통하여 리듬 자체가 몸에 내재화되어야 다른 악곡의 연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그림 8] 스트로크 리듬 음절 적용 예<sup>33)</sup>

32) 리듬 학습순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

33) 스트로크 리듬 음절은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하여 적용한 사례임

[그림 8]은 리듬 음절을 4분음표와 8분음표, 다운(∩)비트와 업(∨)비트로 구분하여 적용한 사례이다. 리듬 음절은 박자별로, 다운비트와 업비트 리듬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리듬 음절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 없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짠, 짜, 자, 쿵, 짹, 판, 따’와 같은 소리로 이는 기타 리듬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오는 음악적 표현 행위의 하나로 구전으로 전해진 소리다.



### Ⅲ. 성인 기타 교육

#### 1. 성인교육의 정의 및 개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개인 여가의 증대, 의료서비스 확충과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성인 인구의 증가는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은 UNESCO에 의하여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다. 성인교육에 대한 기준은 1976년 제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다. 주요 내용은 성인교육에 대한 통일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성인교육의 정의, 목표 및 전략, 성인교육의 내용 및 방법, 수단과 연구의 평가, 성인교육의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명료하게 제시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길, 2001, p. 45).

김동위(1996)는 유네스코 권고의 성인교육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성인교육은 그 내용과 수준, 방법이 어떤 것이건 간에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조직적 교육과정을 말한다.

둘째, 그것은 형식교육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중등학교나 대학이나 또 직전훈련(apprenticeship) 때에 받은 교육의 계속 연장이거나 또는 그것을 대치하는 성격의 것이다.

셋째, 성인교육의 과정은 성인들이 그들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넓히고, 기술이나 직업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는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넷째, 이것은 또한 개인의 보다 충실한 계속적 발달이라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조화롭고 영속적인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태도와 활동을 바꿔주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뜻한다(김동위, 1996, p. 41).

따라서, 성인교육의 개념을 “모든 형태적 비형식적 준 형식적 교육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성인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식의 축적과 능력을 신장시켜 개인적 성장발달과 사회적 능력을 새롭게 갱신

시켜 나가는 총체적 교육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상길, 2001, pp. 13~14).

정지웅·김지자(1987)는 학습대상자인 성인의 지적·신체적·정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의 효과를 위한 학습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성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서서히 지각하고 반응하므로, 즉, 반응속도가 늦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은 각종 태도와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는 정의적 요소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즉, 성인들도 젊은 청소년들처럼 잘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성취감이나 성공감에 대한 기대를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학습자 각자의 자아 개념을 적절히 개발할 수 있도록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진단하고 경험을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과거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이러한 개인들의 경험이 학습을 위한 풍부한 자원이 되게 해 주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도 상호 연관성을 맺어주는 기반이 되게 한다.

다섯째, 성인들의 발달과업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시간 계획에 잘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성인들은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의 포부 및 자기 진단 과정을 통하여 학습 의욕을 자각하고 성취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성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즉시 활용하고자 하므로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한상길, 2001, pp. 87~88, 재인용).

## 2. 성인 학습자의 특성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간의 신체적·감각적, 인지력, 학습능력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인 학습 장애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신체적 변화로 ‘노화’에 있다. 이는 성인들의 교육 가능성과 직결되어 성인들의 시력 및 청력, 감각과 지각능력의 둔화, 느린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학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악기연주에서의 노화는 전반적인 체력감소 및 총주 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외부 자극에 느리게 반응하거나 인지 반응이 더디므로 성인들에게 충분한 연습시간을 주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를 극

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노력과 동시에 지도하는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다.

둘째, 정의적 특성이다. 정의적 특성이란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요인을 말한다. 정의적 특성은 인간행동의 심리적 기초를 이루며 지적특성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서 지적특성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다. 성인들은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습 동기가 있으며 학습을 통해 생겨나는 작은 변화에 대해 기뻐하고, 실생활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게 되면 더욱더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인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들이 학습에 임할 때 스스로의 주도성의 여지를 허락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고 있다는 성공감을 불어넣어 주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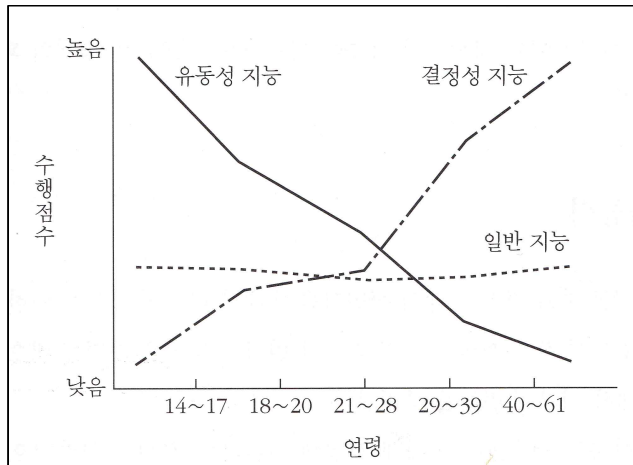
셋째, 성격적 특성이다. 이는 각자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나 심리적 경향에 따른 차이이다. 개인이 처해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양식인 성격은 학습에서의 참여도나 관심도의 계속성 그리고 학습자 간의 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사회적 특성이다.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역할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 가족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단독으로 학습하거나 수동적인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하고 학습자와 지도자 간에 좀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질과 참여율, 학습성도가 높아진다.

다섯째, 인지적 특성이다. 전통적 지능이론에서는 성인들은 지능이 감퇴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Cattell과 Horn의 연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Cattell(1987)은 [그림 9]와 같이 지식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나 발달 되는 과정, 즉 습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유동성 지능은 개인이 속한 문화의 내용이나 체계적 학습활동과는 관계없이 선천적인 유전으로 결정된 지능으로, 뇌 신경의 성숙으로 발달하며 뇌세포의 감소와 손상으로 감퇴된다. 주로 수리능력, 공간지각력 등이 이에 속한다.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 경험, 문화와 의도적 학습에 영향을 입어 습득되는 것으로 언어 능력, 문제해결력 등이 해당한다. 즉, 학습과 경험의 양이 많고 지식을 많이 갖추었을수록 결정성 지능은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유동성 지능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쇠퇴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정성 지능은 아이가 들어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므로 종합적으

로 측정되는 일반 지능은 연령증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전통적인 교육관에 의하면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도 성인기 이후의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Cattell의 이론은 인간의 지적능력이 아동기의 학습만으로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성인기에도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육은 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이다(이현림, 김지혜, 2006, pp. 62~76)



[그림 9] 연령에 따른 성인학습의 변화

비렌(Birren, 1965)은 성인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현림, 김지혜, pp. 90~91, 재인용).

첫째, 성인학습은 나이보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교육연수가 길면 나이가 많아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나이의 차이 때문에 학습의 효과와 속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개 질병, 동기, 주의집중, 태도, 지각과정 등이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허약한 젊은이보다 강건한 노인의 학습능력이 높고,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보다 필요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성인의 학습능률이 높다. 때에 따라 성인의 학습효과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셋째, 성인의 건강은 학습의 중요한 조건으로 성인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으면 청소년과 다르지 않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인은 자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학습에서는 최선의 환경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조직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동기유발은 쉽지도 않고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역할에 의해 좀처럼 실행 기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인의 경우 평생학습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특수성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 특수성으로 인해 성인학습프로그램은 성인의 발달단계와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나이로 인해 반응속도가 둔화함을 염두에 두어 학습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자신감과 성취감 등의 정의적 요인에 관심을 두어 배려하거나, 성인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학습자 상호 간의 경험을 교환하게 하거나, 그것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에 직접적 해결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성인의 학습능력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 3. 성인 교육자의 자질

성인 교육자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 달성 및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하여 그들 스스로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다양한 학습형태 및 기술을 구사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과 흥미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성인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요건으로

첫째, 성인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며, 학습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작문능력 및 유창한 어휘력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함은 물론 탁월한 지도력이나 행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일로 성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성인 학습자들의 경험 및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 줄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셋째, 학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여 주는 일이다.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의 결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겸손한 자세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학습 문제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호감을 주는 인상, 용모, 화술, 유머 감각을 가져야 한다. 남에게 호감을 주는 선한 마음을 통한 깨끗한 인상과 용모를 갖추고, 일상적 상식을 앞서는 체계적 알찬 화술을 구사할 줄 알며, 유머 감각으로 긴장감을 해소해주어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풍부한 인내력과 융통성을 갖는 일이다. 성인들은 간섭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성인 교육자는 학습 장면에서 성인 학습자가 무엇을 잘못 했을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리거나 그들의 행동이나 행위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학습자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열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성인들은 다양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과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성인 교육자들은 폭넓은 상식은 물론 풍부한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부단히 노력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들은 안정감을 느낄 때 가장 잘 학습하게 되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꾸짖는 일보다는 격려성이 담긴 지원하는 말을 해 주면서 학습자들이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인 교육자는 아동 중심의 교육자가 지녀야 할 일반적 자질과 함께 성인 학습자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들의 교육 욕구 및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고루 갖춘 학습조력자와 지도자로서 인내력, 지각능력, 풍부한 지식과 훌륭한 화술, 융통성, 유머 감각, 학습자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야 한다. 그리고 학습 촉진자로서의 특성 소유자와 인간을 사랑하는 성격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왜 성인 교육자 자신이 성인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를 지녀야 존경받는 성인 교육자가 될 수 있다(한상길, 2001, pp. 104~107).

## 4. 기타(Guitar)의 교육적 활용

### 1) 기타(Guitar) 교육의 역사

기타 교육은 기타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종교 음악 중심에서 벗어나 기악이 발전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류트 연주가 활발하고, 음악들도 즉흥적인 반주에서 악보를 보고 연주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손쉽게 악기와 악보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의 류트는 건반악기의 발전에 밀바탕이 되었지만, 음량이 작다는 이유로 17세기 건반악기에 화음 악기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내어주게 되었다. 하지만 고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천재적인 작곡가들과 유능한 기타리스트들이 대

거 등장하며 기타 음악이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또한, 카르카시(Mateo Carcassi, 1792~1853), 아구아도(Dionisio Aguado, 1748~1849), 줄리아니, 소르, 카롤리 등에 의해 기타를 위한 연습곡 집이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즉, 기타 교육은 고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개발된 연습곡 집은 지금까지도 기타 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에도 기타는 개량되고 발전되고 기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19~20세기부터는 기타는 클래식 음악에서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민족주의 음악가인 빌라로보스(Heitor Villa Lobos, 1887~1957)가 작곡한 12개의 연습곡(étude)과 5개의 프렐류드(prelude), 5개의 소로(choro)는 기타 연주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 같은 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영표, 2020). 또한, 20세기 최고의 연주가로 인정받는 세고비아(Andres Segovia, 1893~1897)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곡이나 다른 악기를 위한 곡들을 기타용으로 편곡하는 등 기타 음악의 레퍼토리를 확장시켰으며, 새로운 기법의 연주를 연구하며, 현대인들의 기타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노형주, 2017).

국내에서도 60~70년대 대학가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싹트던 통기타 문화는 1980년대 이후로 대중음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음악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가 대거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 및 학원, 문화센터 등 음악교육 확대와 시설이 대폭 확대되었다.

1957년부터 생겨난 음악학원에서 기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런 음악학원은 1960년대에는 전성기를 이루어 1960년대 후반에 서울 시내에는 40여 개의 음악학원이 존재했었다. 기타의 생산 또한 활발하였는데 1960년대 후반에 세고비아 기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에 지점을 두어 월평균 500대(일렉 기타, 클래식 기타, 통기타 포함)의 기타를 생산했다(김형찬, 2002).

공교육을 통한 기타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정규 교과과정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한 학습과 대학에서는 학과를 개설하고 실용음악과 중심의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교육 측면에서 보면, 실용음악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학원에서도 우쿨렐레나 기타 같은 현악기는 대부분 가르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성인교육으로 직장인 취미반, 각종 문화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학습은 거의 필수과정으로 개설되고 있다. 이미 학교와 사회,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음악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체제는 잘 갖춰져 있고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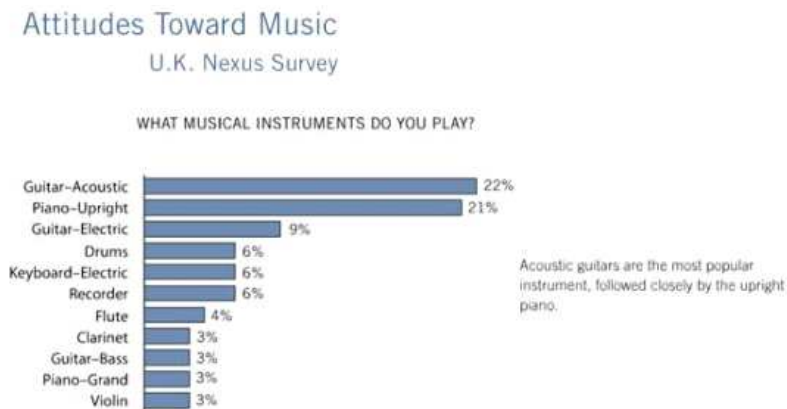
이렇듯 어린아이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타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으로써 가르치는 교수자도 늘어나고 있고, 학습 매체도 다양해 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기타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유튜버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기타 학습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타 학습의 새로운 변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 2) 기타의 선호도 및 교육적 활용도

기타는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화음 다양한 표현력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악기이다. 특히, 리듬과 선율뿐 아니라 코드에 의한 반주의 용이성으로 노래 반주 기능의 역할이 크고 휴대성이 좋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대중적인 생활 악기이며 쉬운 곡을 반주하면서 연주하는 수준까지는 다른 악기에 비해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

70년대 통기타 붐으로 퍼진 통기타 음악은 여전히 대중 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악기이며 누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로 [그림 10] 영국의 Nexus의 악기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타가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류칭웨이, 2018).



[그림 10] 영국의 Nexus의 악기 선호도 조사결과

또한, 전시 전문업체인 (주) 서울 메세아이엔시의 20~40대 성인남녀 47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로 29.4% 바이올린이었고, 이어 피아노 21.8%, 드럼 16.8%, 기타 13.4% 등의 순이었다고 발표했다<sup>34)</sup>.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직장인 445명을 대상으로 악기 선호도와 학습방법, 배우는 이유 등에 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26.5%가 현재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답했고 현재 배우고 있는 악기로(중복응답)는 기타(Guitar) 44.1%, 피아노 8.5%, 우쿨렐레 8.5%, 드럼 6.8%, 바이올린 6.8%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색소폰, 클라리넷 등 금관악기를 배우고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연령별로 나눠보니 30대(35.0%)가 가장 높았고, 20대(20.5%), 50대 이상(19.6%) 40대(18.0%) 순이었다. 악기를 배우는 방법으로는 악기연주 서적을 보고 독학(33.9%)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독학(22.0%), 학원, 아카데미를 통해(20.3%), 개인레슨, 과외 등을 통해(10.2%), 온라인 카페 등 동호회 모임을 통해(8.5%), 사내 동호회 모임을 통해(3.4%), 기타(1.7%) 순이었다. 전문적인 수업을 받는 것보다 혼자 악기를 배우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악기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으로(3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뻘뻘한 업무와 일상 속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 원래 악기연주가 취미여서(30.4%),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19.6%)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7.1%), 최근 세시봉, 서바이벌 프로그램 등 악기연주 열풍으로 인해(3.6%), 사내 외의 모임에 참가하기 위해(1.8%)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27.0%는 악기 연주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했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꼴인 11.2%가 사내에 악기연주 동호회나 모임이 있다고 답했다<sup>34)</sup>

위와 같이 기타는 대중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높은 악기임을 알 수 있고, 문화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타를 선호하며, 교재나 인터넷을 통하여 독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타를 쉽게 접하고 쉽게 배울 수 있음을 말한다.

기타는 대중음악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음악 교육적으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인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는 리듬과 선율 화음을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코드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화음 이론을 습득하게 되고 스트로크 패턴을 통해 박자와 리듬감을 체득하게 되며 멜로디 연주와 노래를 통해 음계와 음감을 훈련할 수 있어 음악의 3요소를 두루 습

34) 연합뉴스(2007. 6.12), 네이버 포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663807>, 2021. 5. 18.

35) 노컷뉴스 '직장인 악기 열풍... 가장 많이 배우는 악기는?' (2011. 8. 17)

(<https://www.nocutnews.co.kr/news/4211997>) 2021. 5. 18.

득할 수 있다.

둘째, 기타는 음역이 비교적 넓고, 풍부한 음색과 다채로운 연주법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기타는 프렛에 의한 반음계의 음계로 정확한 음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기타는 카포에 의한 조 옮김이 쉬워 코드의 변환이 쉽고 다양한 키를 쉽게 적용하여 연주의 편의성과 활용도가 좋다.

다섯째, 기타는 개인 연주와 그룹연주, 다른 악기와와의 앙상블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표현력과 창의력 계발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기타는 노래 반주용 기능으로 대중음악과 생활 속에서 즐기는 악기로 취미 및 여가활동, 자아개발, 타인과의 소통 교류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일곱째, 기타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으며 비교적 저렴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여덟째, 기타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으면 기타 연주를 통한 다양한 표현력과 음악적 토대로 다른 악기를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다.

아홉째, 드럼이나 베이스와 같이 혼자서는 연주하기 쉽지 않은 악기들에 비하여 기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악기이다.

이처럼 기타는 음악적 이론뿐 아니라 감성을 표현하고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면서 정서적 안정 및 여가선용, 타인과의 음악적 소통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최고의 악기라 할 수 있다.

### 3) 음악교육을 통한 성인의 음악적 성장

존블래킹(John Blacking)<sup>36)</sup>은 음악이란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조직화된 소리로서 우리의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인간성을 소리으로써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채현경 역, 1998, p. 149).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음악과 인간 교육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류가 일찍이 문화를 이루고 학문을 체계화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플라톤(Plato),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등의 대표적 사상가들에 의해 성찰됐다. 플라톤은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 현상세계와 우주의 움직임 속에

36) 존블래킹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퀸즈대학에서 사회인류학 교수였다. 1970년에는 웨스트 미시건 대학에서 인류학과 종족 음악학을 강의하였다.

있는 규칙적인 질서와 조화로움이 음악 속에서 완벽한 이데아(Idea)의 세계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특질을 내포한 적절한 음악 경험을 통해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현대적 관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과 음악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음악교육을 이상 국가건설, 바람직한 인간 형성, 여가선용을 위한 도구의 활용뿐 아니라 에토스론(Ethos)과 같이 음악은 인간의 영혼, 정신세계, 윤리관과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음악교육을 인간교육의 필수영역으로 가치화하였다(민경훈 외, 2019, pp. 51~52).

이처럼 음악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항상 존속됐고 인간들에게 음악 예술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음악교육이 시행됐다.

음악교육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창조성을 개발하여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성인에게 있어서 음악교육의 효과를 보면,

첫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중·장년층의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과 소통능력과 취미생활을 넘어서 앙상블, 합창단, 동호회 활동 등 인간관계 형성뿐 아니라 노후를 운택한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악기연주 등 음악적 요소에 대한 훈련과 습득은 두뇌 계발 및 신체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자립은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실현 및 궁극적으로 자아의 완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경제발달과 문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성인들의 자기표현,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음악에 관한 관심과 열정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음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된다.

이렇듯 음악은 인류의 기원과 함께 항상 존속됐고 인간들에게 음악 예술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주기 위한 음악교육이 시행되어왔다. 이러한 음악교육은 인간이 타고난 음악적 성향을 자극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에게 음악의 본질과 가치를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음악을 체험하고 음악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데 음악적 성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얻은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심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 할 수 있게 된다(김희정, 2005).

## IV. 성인 학습자 인식조사

### 1. 설문대상 및 내용

성인 통기타 학습 유형과 인식수준, 동기, 성취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성인 통기타 학습에 적합한 지도 방안 수립을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실용음악 학원과 문화센터, 직장, 동호회,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습유형별로 구분하여 강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부터 초보 학습자까지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서면 질문지로 시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인원은 127명으로 성인 110명, 중학교 학생<sup>37)</sup> 17이다. 성인 중 8명은 현재 통기타를 교수하는 강사<sup>38)</sup>들이다. 이를 학습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습형태별 설문대상

학습 유형	학습장소	설문 참여 인원	비율(%)	비고
전문학원	전문학원	29명(남 14, 여 15)	22.8	광주 2, 전남 1
단체교습	대학 평생교육원	16명(남 12, 여 4)	12.6	3개 기관
	복지센터, 문화센터	20명(남 5, 여 15)	15.8	
	공공기관	16명(남 10, 여 6)	12.6	
동호회 학습 <sup>39)</sup>	동호회	21명(남 13, 여 8)	16.5	광주 2, 전남 1
강사와 전문가	학원/기타	8명(남 8)	6.3	학습자로 분류
방과 후 학습	학교	17명(남 11, 여8)	13.4	광주 1, 전남 1
합계		127	100.0	

37) 광주광역시 00 청소년 수련관 중학교 학생과 전라남도에 있는 00 중학교 방과 후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38) 강사는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사람 5명과 강사와 겸업을 하는 관련 종사자 3명을 포함하며, 설문 분석에 서의 강사는 이 그룹을 말한다.

39) 조사 동호회는 동호회 형식의 기타학원이며, 기타 교실 형태의 모임을 통하여 그룹별 또는 개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동호회 모임 형태로 정기, 비정기 모임 등을 갖는다.

설문은 총 31문항이고 인적 사항 5문항과 기타 학습 관련 26문항으로 개관식 25문항, 주관식 1문항이다. 내용은 성인 학습자의 음악과 통기타 학습 전반에 관한 인식과 수준, 성취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음악적 배경 등 인적 특성이 통기타 학습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와, 성인들의 기타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목표, 학습방법 및 효과, 성취수준과 성취도, 관련 지식의 취득방법 등 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문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습자의 학습 동기 요인과 목적, 성취수준
- 둘째, 학습자의 음악교육경험, 학습기간, 연주수준, 음악 이해 향상도
- 셋째, 학습장소에 따른 학습자의 만족도 및 강사 자질
- 넷째,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요인과 학습 장애 요인
- 다섯째, 학습 매체에 관한 조사로 교재, 웹 활용도
- 여섯째, 활용하는 정도 및 웹 활용의 장점
- 일곱째, 통기타 학습의 지향점 및 배움을 권장하는 정도이다.

<표 3> 설문요소의 문항별 분류

요소	내용	문항 수	비율(%)
인적 사항	성별, 나이, 학력, 직업, 활동경력	5	16.1
학습 동기 및 목적	학습 동기, 학습목적, 성취수준	3	9.7
음악적 배경 지식	교육경험, 선행지식,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음악 이해 향상도, 이론병행 필요성	7	22.6
학습장소	학습장소, 학원 만족도, 단체교습 만족도, 강사 만족도	4	12.9
학습지도	성취도, 포기 요인, 난이도 인식, 어려운 점, 부족한 점	6	19.4
학습 매체	교재 문제, 웹 활용도, 웹 장점	3	9.7
음악 활동	타인 권장도, 권장 사유	2	6.5
학습 지향점	배우고 싶은 내용	1	3.2
합계		31	100.0

## 2. 설문 분석

### 1) 설문자 인적 기초자료

설문 응답자 중 성인의 남녀 나이분포는 <표 4>와 같이 남자는 60대 이상이 37.1%이며, 여성은 50대가 35.4%로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50~60대의 비중이 63.6%를 차지하고 있다. 성인들의 전체 평균 나이는 50.5세로 조사되었다.

<표 4> 나이별 분포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성별	남자	인원	3	5	13	18	23	62
		%	4.8%	8.1%	21.0%	29.0%	37.1%	56.4%
성별	여자	인원	3	7	9	17	12	48
		%	6.3%	14.6%	18.8%	35.4%	25.0%	43.6%
전체		인원	6	12	22	35	35	110
		%	5.5%	10.9%	20.0%	31.8%	31.8%	100.0%

본 연구 설문 조사 나이와 김영수(2018)의 ‘통기타 동호회 활동 참여 동기가 몰입경험과 여가 만족에 관한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나이와 비교를 해 보면 통기타 학습자의 연령대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 등 SNS 망을 이용한 전국 통기타 동호회 회원 311의 설문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응답자는 남자 200명으로 64.3%, 여자는 111명으로 35.7%이다. 응답자의 나이별 분포를 보면 30대는 29명으로 9.3%, 40대는 84명으로 27%, 50~54세는 118명으로 37.9%, 55~59세는 52명으로 16.7%, 60~64세는 26명으로 8.4%, 65세 이상 2명으로 .6%로 조사되었는데, 50~60대가 198명으로 63.7%이다. 이 비율은 본 연구 설문 조사에서 조사된 50~60대 비율인 63.6%와 0.1%의 차이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기타 학습 및 활동을 하는 주요 연령대는 50~60대임을 알 수 있다. 즉, 기타를 배우고 있고 사회적으로 기타와 관련한 동호회 활동 및 기타 문화생산과 소비층이 50~60대의 중장년층이라는 사실은 성인 학습자의 교수·학습지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력분포를 보면, <표 5>와 같이 고졸 27명 24.5%, 대학 및 전문대졸 64명 58.2%, 대

학원 졸 16명 14.5%, 기타 2.7%로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대졸 이상 학력자가 72.8%로 나타났다.

<표 5> 학력별 분포

참여 활동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졸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인원	12	8	29	11	2	62
		%	19.4%	12.9%	46.8%	17.7%	3.2%	56.4%
	여자	인원	15	6	21	5	1	48
		%	31.3%	12.5%	43.8%	10.4%	2.1%	43.6%
전체	인원	27	14	50	16	3	110	
	%	24.5%	12.7%	45.5%	14.5%	2.7%	100.0%	

직업군을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주부 16명 14.5%, 회사원 17명 15.5%, 자영업 13명 11.8%, 공직 및 전문직 32명 29.1%, 기타 32명 29.1%이다. 기타가 높은 것은 남성 퇴직자나 은퇴자 비율이 높은 경우로 보인다.

<표 6> 직업별 분포

직업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전문)직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9	9	19	25	62	
			0.0%	14.5%	14.5%	30.6%	40.3%	56.4%
	여자		16	8	4	13	7	48
			33.3%	16.7%	8.3%	27.1%	14.6%	43.6%
전체		16	17	13	32	32	110	
		14.5%	15.5%	11.8%	29.1%	29.1%	100.0%	

설문 응답자 중 기타 연주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련 직업, 동호회,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표 7>에서와 같이 총 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4.6%이고 이들은 강사 5명 7.7%, 동호회 43명 66.2%, 봉사·공연 8명 12.3%, 기타 연주 활동 3명 3.1%, 음악 산업 종사 5명 7.7%, 기타 2명 3.1%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66.5%는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표 7> 기타 관련 참여 활동 현황

참여 활동 구분		강사	동호회	봉사/공연	기타 연주	음악 산업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인원	5	22	4	2	2	37	
		%	13.5%	59.5%	10.8%	5.4%	5.4%	5.4%	57.0%
	여자	인원	0	21	4	0	3	0	28
		%	0.0%	75.0%	14.3%	0.0%	10.7%	0.0%	43.0%
전체	인원	5	43	8	2	5	2	65	
	%	7.7%	66.2%	12.3%	3.1%	7.7%	3.1%	100.0%	

## 2) 학습유형별 분류

학습유형별로 나이, 직업, 관련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기타 학습 유형을 선택하는 특징적 요소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표 8>에서와 같이 나이분포를 보면 학원 수강자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단체교습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학습자층이 구성되며, 동호회는 20~30대는 없고, 50~60대가 90.5%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학습유형별 나이분포

나 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학 습 유 형	학원	인원	5	3	8	5	8	29
		%	17.2%	10.3%	27.6%	17.2%	27.6%	26.4%
	단체교습	인원	1	9	11	16	15	52
		%	1.9%	17.3%	21.2%	30.8%	28.8%	47.3%
	동호회	인원	0	0	2	11	8	21
		%	0.0%	0.0%	9.5%	52.4%	38.1%	19.0%
	전문 그룹	인원	0	0	1	3	4	8
		%	0.0%	0.0%	12.5%	37.5%	50.0%	7.3%
	전체	인원	6	12	22	35	35	110
		%	5.5%	10.9%	20.0%	31.8%	31.8%	100.0%

젊은 층은 경제활동과 시간적 문제로 중·장년층에 비하여 동호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고, 강사도 50~60대 비중이 높다. 이는 문화센터나 단체교습 등의 강사는 대



부분 고령층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강사료가 생계수단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대부분 중·장년 성인층으로 강사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경우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유형별 직업분포를 보면 <표 9>에서와 같이 전문학원에서 수강하는 수강생의 경우 골고루 분포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단체교습은 공(전문)직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직장 단체학습을 포함한 경우이며, 주부 15.4%, 기타 2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호회는 주부 23.8%와 기타 42.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호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타를 배울 수 있고, 여럿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교류하는 문화가 있어 50~60대 퇴직자나 은퇴자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여겨지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은퇴나 퇴직자들이 학창시절 로망으로 여겼던 통기타를 배우기 위해 타인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단체 교습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학습유형별 직업분포

직업		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전문)직	기타	전체	
학습 유형	학원	인원	7	6	5	8	29	
		%	10.3%	24.1%	20.7%	17.2%	27.6%	26.4%
	단체교습	인원	8	6	3	24	11	52
		%	15.4%	11.5%	5.8%	46.2%	21.2%	47.3%
	동호회	인원	5	3	3	1	9	21
		%	23.8%	14.3%	14.3%	4.8%	42.9%	19.0%
	전문 그룹	인원	0	1	1	2	4	8
		%	0.0%	12.5%	12.5%	25.0%	50.0%	7.3%
	전체	인원	16	17	13	32	32	110
		%	14.5%	15.5%	11.8%	29.1%	29.1%	100.0%

관련 분야 활동 현황을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학원 학습의 경우에는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단체교습은 동호회 활동이 89.3%로 단체학습을 하는 경우는 동호회 활동도 대부분 병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 등 전문그룹은 강사 이외 관련 분야도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학습유형별 관련 분야 활동 현황

관련 분야 활동		강사	동호회	봉사·공연	전문가	음악산업	기타	전체	
학습유형	학원	인원	1	3	5	1	3	1	14
		%	7.1%	21.4%	35.7%	7.1%	21.4%	7.1%	100%
	단체 교습	인원	0	25	2	0	0	1	28
		%	0.0%	89.3%	7.1%	0.0%	0.0%	3.6%	100%
	동호 회	인원	0	15	0	0	0	0	15
		%	0.0%	100.0%	0.0%	0.0%	0.0%	0.0%	100%
전문 그룹	인원	4	0	1	1	2	0	8	
	%	50.0%	0.0%	12.5%	12.5%	25.0%	0.0%	100%	
전체	인원	5	43	8	2	5	2	65	
	%	7.7%	66.2%	12.3%	3.1%	7.7%	3.1%	100%	

학습유형별 학력 분포를 보면 <표 1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대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사 등 전문그룹은 전문대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고 대학원 비율이 25.0%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 실용음악과 전공자의 경우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학습한 경우로 판단되나 소수 설문으로 신뢰성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표 11> 학습유형별 학력분포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전체	
학습유형	학원	인원	7	2	14	5	1	29
		%	24.1%	6.9%	48.3%	17.2%	3.4%	26.4%
	단체 교습	인원	12	7	25	8	0	52
		%	23.1%	13.5%	48.1%	15.4%	0.0%	47.3%
	동호회	인원	7	2	10	1	1	21
		%	33.3%	9.5%	47.6%	4.8%	4.8%	19.0%
전문 그룹	인원	1	3	1	2	1	8	
	%	12.5%	37.5%	12.5%	25.0%	12.5%	7.3%	
전체	인원	27	14	50	16	3	110	
	%	24.5%	12.7%	45.5%	14.5%	2.7%	100.0%	

### 3) 문항 분석

기타 학습과 관련한 문항 분석은 개관식 25문항과 주관식 1문항을 분석하였고 성인들과 학생집단 간의 상호 유사점과 다른 특성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도 병행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유사 또는 구별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객관적 비교가 무의미한 항목은 제외하였다.

통계분석은 엑셀과 SPSS 26을 이용하였다. 먼저 요인분석(factor analysis)<sup>40)</sup>을 통하여 문항 간의 상관성 및 구조에 따라 분류하였고, 문항 분류 중 학습요건과 밀접한 상관 문항에 KMO와 Bartlett의 검정<sup>41)</sup>을 통하여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신뢰도 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신뢰도를 높였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 항목 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일관성이나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이용한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sup>42)</sup>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각 문항 분석은 타 문항과의 유의 수준(level of significance)<sup>43)</sup> 상관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특성을 정리하였다. 문항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문항 1]**은 ‘학습 동기’에 대한 문항으로 성인들의 학습 동기 요인을 알기 위함이다. 이 문항에서 성인들은 50.9%인 56명이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하면서 불러보고 싶어서’

40) 요인분석이란 여러 변수 간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과 변수 간의 상관성 및 구조를 파악하여 여러 변수가 지닌 정보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분석기법(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통계분석:SPSS & AMOS 21. 한빛 아카데미, 2016, p. 109)

41) KMO(Kaiser Meyer Olkin) : 변수 간의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수의 숫자와 케이스의 숫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의미한다. KMO 값은 높을수록 좋으나, 일반적으로 .5보다 크다면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통의 사회과학 연구문제는 .5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 Bartlett: 요인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이면 요인 분석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Bartlett값에서  $p < .05$ 이면 대각행렬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상계서, p. 120)

42) Cronbach의 알파(cronbach alpha coefficient)는 신뢰도 계수라고 하며,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측정 도구의 문항 수에 따라 값이 변한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계수가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함(상계서, pp. 107-108).

43) 가설검증에서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일 때 귀무가설에 관한 판단의 오류 수준(잘못 기각할 확률)을 말하며, 제1종 오류의 위험성을 부담할 최대 확률을 가설의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가설을 검정할 때 보통  $\alpha$ 로 나타내며,  $\alpha$ 는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이전에 설정하여 표본에서 얻은 결과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표본통계치가 나올 확률 p가 0.05 또는 0.01인 점을 유의 수준으로 설정(교육 평가용어 사전, 2004. 5. 31. 한국교육평가학회)

라고 하였고, 17.3%인 19명이 ‘멋진 연주곡을 듣고 배워서 연주하고 싶어서’ 12.7%인 14명이 ‘본인의 정서순화와 자아실현을 위하여’, 11.8%인 12명이 ‘방송 등 기타 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7.3%인 8명이 ‘주변인의 권유로’라고 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방송 등 기타 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35.3%인 6명으로 가장 많고, ‘멋진 연주곡을 듣고 배워서 연주하고 싶어서’ 23.5%인 4명, ‘주변인의 권유’ 23.5%인 4명, ‘본인의 정서순화와 자아실현을 위하여’ 5.9%인 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인들과는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인들은 과반수가 노래 반주를 위하여 통기타를 배우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부모님의 권유와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기표현 욕구가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기타를 배우는 학습 동기 유발점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성인들의 학습 동기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가 학창시절 로망이던 기타를 배우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학습지도와 교수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문항 2]**는 ‘학습목적’으로서 통기타를 배우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이다. 기타를 배우는 주요 목적을 보면 성인들은 45.5%로 50명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해’를 선택했고, 20.9%인 23명이 ‘기타반주에 맞춰 몇 곡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19.1%인 21명이 ‘자신의 음악적 감성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위하여’ 10.9%인 12명이 ‘봉사활동이나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하여’ 3.6%인 4명이 ‘관련 직업 또는 전문연주자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47.1%인 8명이 ‘여가 선용이나 취미·특기를 살리기 위해’, 23.5%인 4명이 ‘자신의 음악적 감성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위하여’, 23.5%인 4명이 ‘기타반주에 맞춰 몇 곡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23.5%인 4명이 5.9%인 1명이 ‘봉사활동이나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하여’였다. 이처럼 주요 목적은 성인과 학생 간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기타를 배우는 주요 목적은 여가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감성개발 및 노래 반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3]**은 ‘성취수준’ 및 성취 목표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관계가 된다. 취미나 동호회 활동과 강사나 직업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습기간과 접근방법에 차이

가 있다. 이 문항에서 보면 ‘초급 수준’ 25.5% 28명, 전주 간주를 포함한 ‘중급 수준’ 50.9%인 56명, 즉흥연주 및 지도할 수 있는 ‘고급 수준’ 15.5%인 17명, ‘전문가 수준’ 8.2%인 9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습자는 초·중급 수준의 연주 능력을 성취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방과 후 학생 그룹은 대부분 ‘초급 수준’이 13명, 76.5%로 대부분이었으며, ‘중급 수준’ 2명 11.8%, ‘고급과 전문가 수준’은 각 1명 5.9%씩이다. 이는 학기 단위의 짧은 학습기간에 맞는 성취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취수준과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12>에서와 같이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와 0.01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Cronbach의 알파 계수 0.788로 신뢰도 검증에 비교적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즉, 성취수준은 성취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취 목표 수준에 따라 학습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성취수준과 관련 유의 상관 문항

문항	상관관계	성취수준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
성취수준	Pearson 상관	1	.454**	.364**	.366**	.293**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02
	N	80.555	59.027	29.418	32.755	22.327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88	.797	5

<표 12>의 성취수준 문항과 다른 문항과의 유의 수준의 상관관계 현황을 보면 숫자가 높을수록 상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기간과의 상관이 가장 유의함을 알 수 있고 이는 학습기간은 성취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문항 4]는 ‘교육경험’ 질문으로 학습자의 음악과 관련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다. 이 문항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음악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7명 15.5%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전문학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학습에서 음악 이론적 기초지식은 학습 성취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전 문항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음악의 사전지식은 기타 연주수준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음악교육 경험과 다른 문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표 13>과 같이 ‘선행지식’,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웹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 상관관계가 유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교육경험과 ‘음악지식’, ‘연주수준’ 등과는 상호 밀접한 유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기타 학습 전 음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경우나 음악이나 기타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경우에는 학습의 이해도나 연주 능력이 일반인보다 뛰어나다는 것과 유튜브 같은 다양한 매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상관관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68이다.

<표 13> 교육 경험 문항 관련 상관관계 분석 자료

문항	상관관계	교육경험	선행지식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웹 활용도
교육 경험	Pearson 상관	1	.221*	.425**	.264**	.301**	.192*
	유의확률(양측)		.020	.000	.005	.001	.044
	N	110	110	110	110	110	11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68	.788	6

[문항 5] ‘선행지식’으로 통기타를 배우기 전 기타나 음악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가? 문항이다. 응답을 보면 ‘매우 잘 알았다.’ 3명 2.7%, ‘잘 알았다.’ 8명 7.3%, ‘보통이다.’ 32명 29.1%, ‘잘 몰랐다.’ 37.3% 41명, ‘전혀 모른다.’ 23.6% 26명으로 ‘잘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60.9%로 대부분 성인은 음악 이론이나 전문지식이 부재한 상태로 기타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대다수는 음악적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타 학습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이런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타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음악적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음악의 기초이론 학습의 전달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지식’은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와 유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신뢰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즉 선행지식 여부는 연주수준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4> 선행지식 문항과 타 문항과의 상관관계

문항	상관관계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
	Pearson 상관	.333**	.595**	.498**	.217*
선행지식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23
	N	110	110	110	11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94	.807	4

**[문항 6]** 학습자의 ‘학습기간’에 대한 조사로 학습기간은 ‘1년 미만’이 41명 37.3%, ‘1년~3년’이 34명 30.9%로 1~3년 사이의 학습자가 6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4~6년’ 14명 12.7%, ‘7~8년’ 5명 4.5%이다. ‘10년 이상’은 16명 14.5%로 강사나 전문가 그룹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설문 분석에 의하면 학습기간은 기타 학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된다.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다른 문항과의 상관성을 보면 <표 15>와 같다. 즉,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수준’, ‘성취도’, ‘음악 이해 증진도’, ‘웹 활용도’, ‘권장 여부’ 문항과 유의 수준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기간은 음악지식과 연주 능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성취수준과 성취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방법에도 익숙하고,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기타를 배울 것을 권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보면 학습기간은 음악지식과 연주수준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학습기간이 오래될

수록 연주 능력이 좋고, 관련 지식이 풍부해진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신뢰도 검증계수인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36로 나타났다.

<표 15> 학습기간과 관련 상관관계 분석

문항	상관관계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수준	성취도	음악이해도	웹활용도	권장여부
학습기간	Pearson 상관	.519**	.641**	.473**	.294**	.323**	.395**	.375**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02	.001	.000	.000
	N	110	110	110	110	110	110	11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87	.795	7

[문항 7] 현재의 ‘음악지식’ 수준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기타를 배우기 전과 배운 후 음악지식의 습득 정도의 차이를 알고자 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잘 모른다.’라는 응답이 47명 42.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3명 39.1%, ‘매우 잘 안다.’ 4명 3.6%, ‘잘 안다.’ 11명 10.0%, ‘전혀 모른다.’ 5명 4.5%로 조사되었다. ‘잘 안다.’와 ‘매우 잘 안다.’라는 응답자는 13.6%로 소수이며, 86.4%인 대부분 응답자는 보통 이하로 응답하였다.

[문항 5]의 기타 학습 전 음악지식을 묻는 문항과 비교하면, [문항 5]의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률은 23.6%에서 학습 후 4.5%로 19.1% 감소하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29.1%에서 39.1%로 10% 증가하였으며, ‘잘 안다.’라는 비율은 7.3%에서 10%로 2.5% 소폭 상승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학습 후 다소 음악지식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어 기타 학습이 음악지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유의할 만하다. 그러나, 기타 학습 후 ‘잘 모른다.’라는 비율이 기타 학습 전 37.3%에서 42.7%로 오히려 5.4%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타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음악적 지식의 부족함을 느낀 결과로 추정된다.



음악 지식수준은 연주의 질과 성취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기타 연주의 기능 위주의 초보적 학습에서 중·상급 단계로 도약을 위해서는 음악적 지식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지식은 선행 문항 분석인 <표 12> ‘성취수준’, <표 13> ‘교육경험’, <표 14> ‘선행지식’, <표 15> ‘학습기간’과 밀접한 유의 상관이 있고, ‘음악지식’과 다른 문항과의 유의 수준의 상관을 보면 <표 16>과 같다. 음악지식은 ‘음악 이해 증진도’, ‘웹 활용도’, ‘권장 여부’ 등과 유의 상관이 있고, Cronbach의 알파 계수 .724로 나타났다.

<표 16> 기타 관련 음악지식과 타 항목 간 상관관계

문항	상관관계	연주수준	성취수준	성취도	음악 이해도	웹 활용도	권장 여부
	Pearson 상관	.632**	.322**	.387**	.315**	.297**	.198*
음악지식	유의확률(양측)	.000	.001	.000	.001	.002	.038
	N	110	110	110	110	110	11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24	.742	6

[문항 8] 현재 학습자가 느끼는 본인의 ‘연주수준’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응답을 보면, ‘별로 못 친다.’ 49명 44.5%, ‘보통이다’ 33명 30.3%, ‘매우 못 친다.’ 14명 12.7%, ‘잘 치는 편이다’ 10명 9.1%, ‘매우 잘 친다.’ 4명 3.6%이다. 못 친다는 응답자는 57.2%로 절반 이상이 자신의 연주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잘 친다는 응답자는 12.7%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주수준’은 ‘학습기간’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의 ‘연주수준’ 평가가 보통 이하가 87.5%로 나타난 것을 보면 3년 이내 학습자가 68.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주수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지식’과의 상관이 가장 밀접하게 나타났음을 볼 때 음악적 지식이 연주력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문항 간의 상호 유의 상관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면 문항 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들 문항의 유의 상관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에 의한 표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측도는 .80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 또한,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798로 확인되었다.

<표 17> 학습기간과 유의 상관관계

문항	학습기간	교육경험	선행지식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	성취수준	
상관 관계	학습기간	1.000	.425	.333	.519	.641	.294	.454
	교육경험	.425	1.000	.221	.264	.301	.125	.168
	선행지식	.333	.221	1.000	.595	.498	.217	.172
	음악지식	.519	.264	.595	1.000	.632	.387	.364
	연주수준	.641	.301	.498	.632	1.000	.444	.366
	성취도	.294	.125	.217	.387	.444	1.000	.293
	성취수준	.454	.168	.172	.364	.366	.293	1.000

<표 18>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43.730
	자유도	21
	유의확률	.000

<표 19> Cronbach의 알파 계수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98	.803	7

[문항 9] '음악 이해 향상도'에 대한 문항으로 기타 학습을 통하여 음악적 이해도 증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의 응답을 보면 '그렇다' 56.4% 62명이, '매우 그렇

다.’ 26.4% 29명, ‘보통이다’ 17.2% 19명으로 긍정적 응답이 82.8%이며, 부정적 응답인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0%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통기타 학습이 성인들의 음악적 이해도를 넓히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악 이해 향상도’ 문항과 타 문항과의 상관을 보면, 앞 문항에서 살펴본 ‘교육 경험’, ‘선행지식’,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문항과 유의 수준의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타 학습을 통하여 음악의 이해 정도가 넓어진다는 의미로 성인의 음악적 성장에 기타 학습이 매우 유용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10]** ‘이론병행 필요성’ 통기타를 배우면서 음악 이론공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다. 이 문항은 학습자들이 이론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 조사이다. 응답을 보면 ‘병행하는 것이 좋다’가 58명 52.7%,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가 38명 34.5%로 총 87.2%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보통이다’라는 11명 10.0%, ‘그렇지 않다’ 2명 1.8%,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0.9%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2.7%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습자는 음악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는 학습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한 교재와 교수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이론과 병행된 실기지도 및 교수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이론과 실기병행 학습은 학습자들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문항 11]** ‘학습장소’에 관한 문항으로 성인들이 기타를 배울 때 학습장소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이다. 응답에 의하면 초보 학습자들은 ‘전문학원’ 26명 23.6%, ‘동호회 형태의 모임’ 25명 22.7%, ‘단체교습’ 24명 21.8%, ‘책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한 독학’ 19명 17.3%, ‘지인이나 친구, 가족 등을 통하여’ 16명 14.5%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학을 위한 교재나 인터넷 매체, 각종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등 우리 사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 시스템과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직장인 4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악기를 배우는 방법으로는 악기연주 서적을 보고 독학(33.9%)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등을 통해 독학(22.0%), 학원, 아카데미를 통해 (20.3%), 개인지도, 과외 등을 통해(10.2%), 온라인 카페 등 동호회 모임을 통해(8.5%),

사내 동호회 모임을 통해(3.4%), 기타(1.7%) 순이었다”<sup>44)</sup> 이 설문 조사는 독학이 53.9%로 교재나 웹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비율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대상 연령층이 30대(35.0%), 20대(20.5%), 50대 이상(19.6%) 40대(18.0%)로 20~30대가 50.5%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경우로 본 설문 조사에서의 학습 유형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형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2]** ‘학원 만족도’ 전문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때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이 문항에 68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61.8%를 나타냈다. 불만족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으로 27명 39.7%를 나타냈고, ‘시간과 거리 등 물리적 환경’이 25명 36.8%, ‘교재 및 선곡’이 10명 14.7%, ‘경제적 여건’이 5명 7.4%, 기타 1명 1.5%였다. 불만족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강사의 자질과 교수법’인 것을 보면 학습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교수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성인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여건은 큰 제한적 요인이 아니며, 사회생활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거리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3]** ‘단체교습 만족도’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 단체학습에 있어서 불만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 73명이 응답하여 66.4%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큰 불만 요인은 단체학습에 따른 ‘수준별 학습제한’으로 31명 42.5%,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이 20명 27.4%, ‘개별지도 시간 부족’ 18명 24.7%, ‘교재 및 곡의 선곡’ 3명 4.1%, ‘학습자 간 소통’ 1명 1.4%로 조사되었다. 불만족 요인은 단체학습에서의 수준별 학습제한과 개별지도시간 부족 문제로 총 67.2%이며, 일괄 학습에 따른 학습 단계 조정문제가 가장 큰 불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자질 문제는 전문학원보다는 낮았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학원이나 단체교습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문제는 학습자의 불만족 요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14]** ‘강사 만족도’로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의 강사에 불만족한 경우 주요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강사의 불만족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강사의 자질 향상과 적합한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이 문항은 66명이 응답하여 60.0%의 응답률을 보였다. 불만족 요인으로 가장 큰 요인

44) 노컷뉴스 ‘직장인 악기 열풍... 가장 많이 배우는 악기는? (2011. 8. 17)  
(<https://www.nocutnews.co.kr/news/4211997>) 2021. 5. 18.

은 ‘교수법’이 17명 42.4%이고,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이 각각 17명 25.8%, ‘인성 부족’이 4명 6.1%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교수법에 불만이 크다는 조사결과는 강사의 학습지도와 성인을 상대로 한 교수법 개발에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교수법과 더불어 전문성은 강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관계되는 요소로 강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문성 없이 좋은 교수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실한 지도와 인품을 갖춘 교수자가 필요함을 말한다. 학원 및 단체학습에서의 불만족에서 강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만족 요인이 교수법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점에서 강사의 자질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문항 15]** ‘성취도’를 묻는 문항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는 학습 성취 정도이다. 응답을 보면 응답자의 52.7%인 58명이 ‘보통이다’에 응답했으며, ‘높다’가 31명인 28.2%, ‘매우 높다’가 11명인 10.0%, ‘낮다’가 9명인 8.2%, ‘매우 낮다’가 1명인 .9%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들의 정서적 성취도로 보이며 학습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러한 성취도는 성인학습 특성상 즉각적이며 실질적인 활용과 성취감과 만족감은 성인들에게 꾸준한 학습동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체적으로 성인들은 음악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16]** ‘포기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학원이나 단체학습에서 학습 도중 포기하게 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 91명이 응답하여 8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시간적 여유’에 41명 45.1%, ‘재능 부족’ 26명 28.6%, ‘학습 내용 불만족’ 15명 16.5%, ‘강사 자질’ 5명 5.5%, ‘경제적 문제’ 4명 4.4%를 보였다. 이는 강사 자질과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보다 시간 부족과 재능 부족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강사의 자질 문제는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나 학습을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성인학습에서는 사회활동에 따른 시간의 제약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17]** ‘난이도 인식’으로 통기타를 시작하기 전과 배운 후 통기타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지 어려운지에 관한 문항으로 통기타 학습에 대한 학습 인식조사이다. 이 응답에 의하면 통기타를 시작하기 전과 배운 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기타를 쉽게 시작하게 되고 또 그만큼 쉽게 포기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응답을 보면, ‘어렵다’ 59명 53.6%, ‘생각보다 어렵다.’ 27명 24.5%, ‘보통이다’ 16명

14.5%, ‘생각보다 쉽다.’ 8명 7.3%, ‘매우 쉽다.’ 0.0%로, 응답자의 78.1%인 대부분은 ‘생각보다 어렵다’라거나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기타 학습자가 기타를 시작하기 전에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배우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며, 의외로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는 뚜렷한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이 부족 하면 쉽게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초보 학습자를 배려하는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문항 18]** ‘어려운 점’으로 통기타를 배울 때(초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이다. 이는 초보자가 처음 기타를 접하고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기능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응답을 보면, 성인의 경우 가장 어렵다고 하는 기능은 ‘코드 잡기’ 48명 43.6%, ‘악보 이해’ 29명 26.4%, ‘스트로크 기술’ 18명 16.4%, ‘손가락 통증’ 7명 6.4%, ‘조율’ 3명 2.7%, ‘자세’ 5명 4.5%였다. 또한, 학생 그룹은 ‘코드 잡기’ 8명 47.1%, ‘손가락 통증’ 4명 23.5%, ‘스트로크 기술’ 2명 11.8%, ‘악보 이해’ 2명 11.8%, ‘조율’ 1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 성인들과 학생들 간의 가장 어려운 점은 ‘코드 잡기’로 큰 차이가 없으나 ‘손가락 통증’과 ‘악보 이해’는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손가락 통증’은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힘들어하고 성인들은 ‘악보 이해’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그룹은 방과 후 수업 학생들로서 학습 시작 기간이 비교적 짧아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초보 수준에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손가락 통증보다 악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보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기능은 코드 잡기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코드 학습은 초보자가 가장 쉬워하는 코드 순으로 학습 위계를 세워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 19]** ‘부족한 점’ 현재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점(통기타를 배우는 중이거나 배운 후)은 무엇인가? 이다. 이 문항은 통기타 학습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학습자가 더 배우고 싶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요인 또는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성인들은 ‘손가락 움직임의 어려움’이 32명 29.1%로 가장 높고 ‘음악 이론’ 24명 21.8%, ‘노래와 반주의 동시 연주’ 18명 16.4%, ‘악보 독해’ 14명 12.7%, ‘박자와 리듬감’ 12명 10.9%, ‘코드’ 10명 9.1% 순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편, 학생 그룹은 ‘손가락 움직임의 어려움’ 7명 41.2%로 성인들보다 더 높고, ‘음악

이론' 3명 17.6%, '박자와 리듬'과 '코드' 각각 3명 17.6%, '악보 독해' 1명 5.9%, '노래와 반주 동시 연주' 0.0%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초보 수준의 학습 단계에서 코드 바꿈에 따른 왼손의 움직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이며, 성인들도 코드나 스케일 연주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왼손의 기민한 움직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타의 연주 기능에서 왼손의 민첩성과 정확성이 연주의 속도와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문항 18]의 시작 단계에서도 '악보의 이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26.4%였으나 현재 기타활동을 하고 학습 중임에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음악 이론' 21.8%와 '악보 독해' 12.7%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적절한 이론병행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문항 20]** '학습교재' 본인이 공부한 기타 교재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는가? 이다. 이 문항은 학습자들이 느끼는 기타 교재의 부족한 내용을 알아보고 성인 학습자에 적합한 교재요소를 제안함에 있다. 응답을 보면, '체계적 이론의 보완'이 41명 37.3%로 가장 높고, '전주·간주 상세악보' 34명 30.9%, '잘 아는 노래 신곡 보완' 23명 20.9%, '웹과 연결된 시청각자료 보완' 9명 8.2%, '악보의 시인성 보완' 3명 2.7%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분의 통기타 교재들은 기초적 간단한 악전과 코드, 리듬 스트로크 주법, 아르페지오 연주 중심으로 편집되고 노래 반주를 위한 악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재 형태는 전통적 교재 제작 형태로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다.

성인들은 대부분 간단한 악보 이해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화에 따른 신경 반응의 둔화로 습득 속도가 더디다. 성인들이 말하는 체계적 이론의 보완 의미는 복잡한 화성학적 접근이 아닌 실제로 기타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이면서 실용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러한 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점점 더 깊게 체계적으로 연주에 적용하면서 음악 이론과 실기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하겠다. 또한, 현재 대부분 교재는 전주 간주 부의 상세한 연주 악보가 없어 초급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연주력이 생기면 전주 간주 부를 포함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하고픈 욕구가 생기나 대부분 교재는 전부 간주 부의 상세악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항 21]** '웹 활용도'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의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며, 교육환경의 일대 전환

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타 학습에서도 유튜브(YouTube) 등을 활용한 웹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용자 또한 많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웹을 활용한 학습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일상생활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습자에게는 비대면 웹을 이용한 학습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20> 웹 활용도 관련 음악지식과 타 문항 간 상관관계

문항	상관관계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음악 이해도	강사 불만족 사유	권장여부
웹 활용도	Pearson 상관	.395**	.297**	.321**	.259**	.347**	.244*
	유의확률(양측)	.000	.002	.001	.006	.004	.010
	N	110	110	110	110	66	11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93	.768	6

기타 학습자의 웹 활용도를 묻는 문항에서 ‘적극적 활용’ 8명 7.3%, ‘활용’ 37명 33.6%, ‘보통’ 26명 23.6%, ‘거의 없다.’ 23명 20.9%, ‘경험 없다’ 16명 14.5%로 나타났다. ‘보통’과 ‘활용’ ‘적극적 활용’을 합하면 64.5% 이상이 웹을 이용한 기타 학습의 경험이 있고, 웹을 활용하여 기타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 활용 문항과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20>에서와 같이 ‘학습기간’, ‘음악지식’, ‘연주수준’, ‘음악 이해 향상도’, ‘강사 불만족 사유’, ‘권장 정도’ 문항과 유의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 분석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793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기타 학습에 유튜브 등의 웹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학습자 그룹은 학습기간도 길고, 음악지식도 풍부하고, 연주수준도 높으며, 음악 이해 향상도도 높고, 강사 전문성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학습기간이 오래되고 음악지식과 연주에 능한 학습자일수록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런 학습자는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 취득과 이해력이 초보 그룹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초보 그룹은 상대적으로 웹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초보자의 경



우 학습이 기능 위주에 치우쳐 있는 것과 학습 목표 설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온라인 강좌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문항 22]** ‘웹 장점’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활용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이다. 이 문항은 학습자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서의 웹의 유리한 점을 찾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57.3%인 63명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을 들었고, 37.3%인 41%는 ‘다양한 정보’, 5.5%인 6명은 ‘경제적 이득’이라는 답을 했다.

기타와 관련된 콘텐츠로 수많은 유튜브가 활동하고 있고 엄청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초보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고 웹 학습의 한계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나 향후 점점 커지는 비대면 정보화 시대에 웹을 이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및 웹과 연계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학습 및 교재 제작 시에 웹을 이용한 콘텐츠의 공유, QR코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 23]** ‘타인 권장도’로 기타를 배우는 것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가? 이다. 이 문항은 기타를 배우면서 오는 성취감 및 기타 학습의 긍정적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비율이 ‘적극 권장’이 29.1% 32명, ‘권장’이 57.3% 63명, ‘보통’ 13.6% 15명이며 권장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0%로 전체적으로 권장 비율이 86.4%로 타인에게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타 학습자가 기타를 배우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동기나 목적에 부합하였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24]** ‘권장 사유’ 기타를 배우는 것을 타인에게 권장한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타인에게 권하는 사유를 보면 ‘여가 선용과 취미· 특기 개발’이 53명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계발과 자아실현’ 22명 20.0%, ‘정서순화’ 17명 15.5%, ‘소통·교감 활동 증진’ 15명 13.6%, ‘음악지식 취득 창의성 함양’ 3명 2.7%이다. 이는 [문항 2] 기타 학습목적에서 ‘여가선용’ 45.5%, ‘취미생활’ 20.9%로 조사된 바와 같이 성인들의 학습목적과 유사하다. 성인들은 기타 학습과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삶의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며,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타 학습이 취미 및 여가선용의 도구와 정서순화, 자기계발과 타인과의 소통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문항 25]** 기타를 배울 때 가장 쉬운 코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라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127명 중 92.1%인 117명이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초보 학습자가 쉬워하는 코드를 알

아보고 코드 학습 위계에 적용하기 위한 문항으로 코드는 초보 수준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로 A, C, D, E, F, G 6개 코드이다.

순서는 각 코드의 선택된 빈도로 정하였으며, 가장 쉽거나 편한 코드라고 선택한 빈도로 보면 51명인 43.6%가 A 코드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E 코드로 35명 29.9%가 선택하였고 3번째는 D 코드로 36명 30.8%로 조사되었다. C 코드는 보통 수준이며, 어려운 코드는 G 코드, 가장 어려운 코드는 87명인 74.4%가 F 코드를 들었다. 이처럼 코드의 모양에 따라 코드 잡기가 차이가 나므로 악곡 선정 시 코드 선정에 관심을 두고 코드 학습 위계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장 어려운 F 코드는 바레 코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고 좋은 소리를 내기 어려운 코드로 기초적 훈련 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어 교수·학습지도 및 교재 제작 시 이와 같은 코드 학습 위계와 리듬 학습 위계를 반영한 악곡의 선정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문항 26]** ‘배우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라는 문항으로 현재 초·중급 수준에서 학습자의 미래 성취수준과 목표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 문항에 38명이 응답했으며 응답 내용<sup>45)</sup>을 정리하면 음악 이론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현재 수준을 벗어나 수준 있는 연주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즉,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연주곡 등 목표 수준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선호하는 곡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들의 학습 목표는 다양하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수자는 이점을 늘 생각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취 욕구를 도와주는 조력자 내지는 협력자 또는 이끌어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학습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 제공,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기능적 교수 능력과 더불어 학습자들을 성인학습의 큰 틀에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이 문항은 문항 3번 성취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고급 수준인 전주 간주를 포함한 수준의 연주를 목표로 하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21> 배우고 싶은 내용

종류	배우고 싶은 내용	응답
----	-----------	----

45) 응답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 많으나 응답자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그대로 옮김

악보 및 음악 이론	음악 이론/ 악보의 이해/ 악보공부와 주법 공부	3명
스리핑거/ 아르페지오 연주	핑거스타일/ 스리핑거 연주/ 아르페지오 연주/아르페지오 클래식	6명
코드	하이코드, 코드 변형하는 법, 코드 진행/일단 코드를 자유자재로 잡고 예쁜 소리내기	2명
노래 반주와 전주 간주/ 즉흥 연주	스트로크와 전주/ 노래와 반주 연결/ 악보 보고 혼자 하기/ 전주, 애드리브/ 주법/ 전주 간주 테크닉/ 자유스러운 연주/ 전주 멜로디/ 애드리브/ 스케일 전주 간주 후주 자연스러운 연주/ 팝송 트로트/ 전주 간주/ 트로트 최신곡/ 최신 유행곡 연주 노래/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연주/ 수준 있는 연주와 자연스러운 작곡/ 자연스러운 연주/ 즉흥 연주/ 정확한 리듬감과 스케일/ 좋아하는 노래 반주법/ 고급 수준까지 연주하고 싶어요/ 유명한 곡 선택 곡 배워보기/ 자유롭게 기타반주와 연주	24명
기타	클래식 기타 연주법, 재즈 음악, 연주곡, 클래식 연주	3명
계		38명

### 3. 설문 분석 결과

설문 분석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형태 및 의식을 조사하여 성인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설문 분석은 통계학적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설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는 총 127명으로 성인 110명, 학생 17명이다. 성인 응답자 중 남자 62명 56.4%, 여자는 48명으로 43.6%이며, 이 중 50~60대가 70명으로 63.6%이다. 성인 응답자 평균연령은 50.5세이다. 학력 분포는 고졸 27명 24.5%, 전문대 및 대졸 64명 58.2%, 대학원 졸 16명 14.5%, 기타 2.7%로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직업군을 보면, 주부 16명 14.5%, 회사원 17명 15.5%, 자영업 13명 11.8%, 공직 및 전

문직 32명 29.1%, 기타 32명 29.1%이다. 기타가 높은 것은 남성 퇴직자나 은퇴자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기타와 관련하여 강사나 학원 등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동호회 및 봉사활동, 전문 가수 활동을 하는 응답자를 보면 총 65명으로 강사 5명 7.7%, 동호회 43명 66.2%, 봉사·공연 8명 12.3%, 기타 연주 활동 3명 3.1%, 음악 산업 종사 5명 7.7%, 기타 2명 3.1%로 조사되었다. 성인 기타 학습 층은 40~60대가 80.6%로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둘째, 성인들의 기타 학습 동기는 50.9%가 노래 반주를 위하여 배우게 되며, 목적은 45.5%가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성인들은 기타를 배우는 동기와 목적은 기타 연주를 통한 여가 선용과 취미활동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성인 기타 학습자의 84.5%는 음악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으며, 기타 학습기간은 1년~3년이 68.2%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은 14%이다. 이 학습기간은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수준, 성취도, 음악 이해도, 웹 활용도, 권장 여부 등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이 학습기간이 연주수준과 연주 능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에 의한 표본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측도는 .803이며, 신뢰도 또한 Cronbach의 알파 .798로 확인되었다. 각 문항 간의 설문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항목별 상관관계 및 신뢰도

문항	학습기간	교육경험	선행지식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도	성취수준
학습기간	1.000	.425	.333	.519	.641	.294	.454
교육경험	.425	1.000	.221	.264	.301	.125	.168
선행지식	.333	.221	1.000	.595	.498	.217	.172
음악지식	.519	.264	.595	1.000	.632	.387	.364
연주수준	.641	.301	.498	.632	1.000	.444	.366
성취도	.294	.125	.217	.387	.444	1.000	.293
성취수준	.454	.168	.172	.364	.366	.293	1.000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0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43.730
	자유도	21
	유의확률	.000

Cronbach의 알파	표준화된 항목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98	.803	7

넷째, 기타 학습이 성인들의 음악적 이해도를 넓히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학습을 통한 음악적 지식과 소양, 음악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이 82.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인의 음악적 성장에 기타 학습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성인들은 기타 기능학습과 함께 이론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론이 병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항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5%,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7%로 87.2%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는 음악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는 학습을 통해서 연주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전문학원에서 불만족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이 39.7%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단체학습에서는 수준별 학습제한과 개별지도시간 부족 문제에 대한 불만이 67.2%로 나타났다.

일곱째, 강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교수법’이 42.4%로 가장 크고, 이어서 ‘전문성 부족’과 ‘불성실’이 각각 25.8%, ‘인성 부족’이 6.1%로 조사되었다.

강사의 교수법에 불만이 크다는 조사결과는 강사의 학습지도와 성인을 상대로 한 교수법 개발에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교수법과 더불어 전문성은 강사의 기본적인 자질에 관계되는 요소로 강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덟째, 기타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코드 잡기’ 43.6%, ‘악보 이해’ 26.4%, ‘스트로크 기술’ 16.4%, ‘손가락 통증’ 6.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초보의 코드 운지는 쉬운 코드 순으로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코드 운지가 가장 쉬운 코드로는 43.6%가 A 코드를 들었으며, 두 번째로는 E 코드로 35명 29.9%가 선택하였고 3번째는 D 코드로 36명 30.8%로 조사되었다. C 코드는 보통 수준이며, 어

려운 코드는 G 코드, 가장 어려운 코드는 87명인 74.4%가 F 코드를 들었다. 이처럼 코드의 모양에 따라 코드 잡기가 차이가 나므로 악곡 선정 시 코드 선정에 관심을 두고 코드 학습 위계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홉째, 기타 교재의 보완내용을 보면 ‘체계적 이론의 보완’이 37.3%로 가장 많고, ‘전주·간주 상세악보’ 30.9%, ‘잘 아는 노래’ 20.9%, ‘웹 활용 병행’ 8.2%, ‘악보의 시인성’ 2.7%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음악적 기초이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학습 교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유튜브 등 웹을 활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특성은 연주수준과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다. 이는 웹의 특성상 체계적인 학습보다 단편적이며 일회성 강의가 많은데 고급학습자들은 이를 잘 활용할 기초지식과 학습 방향이 명확하지만, 초보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전지식의 부족으로 활용성을 높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기타와 관련된 콘텐츠로 수많은 유튜버가 활동하고 있고 엄청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향후 점점 커지는 비대면 정보화 시대에 웹을 이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및 웹과 연계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학습 및 교재 제작 시에 웹을 이용한 콘텐츠의 공유, QR코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열한 번째, 기타를 배우는 학습자 대부분은 타인에게 배울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타 연주를 통하여 취미활동 및 봉사활동, 타인과의 소통과 교감 등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의 이상을 이루어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성인 통기타 교수·학습에 유의미한 지도 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즉, 기타 학습 인식과 학습형태, 기타를 배우는 주요 동기와 목표, 성취수준 및 음악지식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습효과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학습기간임을 알 수 있고, 학습에서의 불만족 요인과 기대 수준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에 관한 불만족 요인이 상당하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요구사항과 수준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수법과 지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V. 기타 교재 분석

### 1. 교재 연구의 필요성

기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타 학습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성인 기타 학습자의 교수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러한 성인 학습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시중 교재를 분석하여 성인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 교과에서 교재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남덕우 등(1985)은 교재의 개념을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교육의 내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 기타 학습에서의 교재는 기타 연주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교육내용이 교재 분석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왜 교재 연구가 필요한가? 음악교재는 음악 학습 활동을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물로서 음악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교재 연구를 통하여 더욱더 나은 교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겠다(김미숙 외, 2017. pp. 16~17).

기타 교재 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따라 적절하게 난이도가 배분되었는 지이다.

둘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며 의욕을 북돋우는 내용이 있는 지이다.

셋째, 여러 가지 이론적·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지이다.

넷째, 성인 학습자의 인지능력과 기능적 수용 능력에 맞게 단계적인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는 지이다.

다섯째,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나갈 수 학습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이다.

여섯째,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음악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교재 발간 역사는 한국에 기타가 유입되어 당시 청년세대들의 새로운 음악인 기타 문화가 싹트던 50년대로부터 추정된다. 1960년대 후반에는 서울에 40여 개의 음악학원이

있었음을 볼 때 기타 교재의 수요가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953년도에 설립된 세광음악출판사의 연혁에 의하면 1960년에 최초의 독습서 형태의 기타 교재<sup>46)</sup>를 출판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 들어 기타 음악이 대중음악을 주도하게 되자 간단한 악전과 코드와 리듬을 곁들인 ‘학생 기타 교본’과 코드를 곁들인 가요집 형태의 교본이 많이 보급되었고, 80~9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교재가 기본악곡과 신곡을 추가하는 형태로 출판되었다. 1993년도부터 ‘이정선 기타 교실’ 교재가 시리즈로 출판되었다. 이 교재는 이론과 연주 기능의 체계적 편집으로 기존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모습으로 인기를 얻었다. 시대에 변화에 따라 음악 장르로 변화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연주와 학습방법도 변하고 교재도 함께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중의 기타 교재 현황을 보면, 대다수 교재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것으로 간단한 악전과 간편한 동작 위주로 제작된다. 이는 이러한 교재가 잘 팔린다는 것을 말한다. 기타를 배우는 초보적 단계에선 이론적 접근보다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재를 통한 기타 학습이 일반화되어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즉, 이러한 초급용 교재들의 문제는 학습자의 음악적 지향점을 하향시킨다는 데 있다. 간단한 코드에 리듬 위주의 단순 동작 중심 교재는 음악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일정 수준에서 그치게 되고 학습자는 학습의 흥미와 방향을 잃고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기타 학습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가 쉽게 접근하는 요인도 되지만 그만큼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sup>47)</sup>의 악기 거래 현황을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분석한 악기 거래 목록 건수를 보면 ‘기타’가 1,126건, ‘우쿨렐레’ 323건, ‘바이올린’ 793건, ‘첼로’ 635건, ‘플루트’ 22건, ‘클라리넷’ 145건, ‘색소폰’ 588건으로 기타가 다른 악기보다 활발하게 거래가 됨을 알 수 있다<sup>48)</sup>. 이는 기타가 많이 팔리고 수요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나 한편으로 그만큼 도중에 포기하는

46) 세광음악출판사 홈페이지 연혁에 의하면 “당시 기타 교재로서는 유일한 독습서”라고 명기되어 있음  
[https://www.sekwangmall.co.kr/\\_wg/import/sub/page\\_03.html#anchor](https://www.sekwangmall.co.kr/_wg/import/sub/page_03.html#anchor)(2021. 5. 3)

47) 2021년 3년 19일, 12:40 기준 총회원 수 18,662,055명으로 최대규모 온라인 시장임

48) 2021년 4월 19일, 13:30 기준 검색 옵션 ‘제목만’으로 검색한 자료로 같은 아이디어의 중복 게재도 포함하며, 피아노의 경우 2021년 3월 24일 이전 자료는 검색 불가로 이후 자료(2,350건)만 검색되어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경우도 많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기타 학습에 대한 일반적 인식변화와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교재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음악적 학습기법을 포함한 이론적 접근 필요하다.

## 2. 교재 분석

교재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교재는 [그림 11]과 같이 2021년 2월 1일 자 기준 ‘기타 교본’으로 검색한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판매량 상위 2위(총 250건)와 네이버 검색 인기순위 상위 5위(1,274건) 교재 중 5권을 선정하였다<sup>49)</sup>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교재는 다음과 같으며 대체로 초·중급자용으로 제작되었다.

<표 23> 분석 교재 목록

번호	제목	출판사	저자	쪽수	출판연도	특징
1	올바른 기타 교본	티나	유세현	254	2017	성인 대상 중급교재
2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세광음악출판사	뉴송편집부	157	2017	성인 대상 기초교재
3	마구마구 기타 교본	일신미디어	일신음악연구회	143	2019	코드 및 스트로크 CD 음원 제공
4	기타 폼나게 쳐봐 (초급용 교본)	아름출판사	박해민	143	2019	QR코드 활용한 연주사례와 MR 제공
5	낭만의 기타(초급)	민스뮤직출판	최수현, 이병용	215	2020	성인 대상 기초교재

### 1) 외형적 관점

교재의 제목, 목차, 크기, 활자, 색깔, 두께 등 형식적 요소도 내용 못지않은 교재 선택과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분석 교재들은 제목이나 외형적인 모습에서 흥미와 관심을 유

49) 네이버 인기순위 1위 교재는 핑거스타일 교재로 다른 교재와 비교가 곤란하여 제외하였고 교보문고 검색 판매순위 2위 교재는 네이버 4위 교재임

발하게 하고 시인성을 좋게 하는 등 노력이 보인다. 교재의 크기는 230mm×306mm이며, 컬러로 인쇄되었다. 외형적 관점의 분석은 목차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그림 11] 분석 교재

<표 24> 분석 교재 목차 분석표

제 목	목 차		비고
	쪽	주요 내용	
올바른 기타 교본	9~55	음표와 쉼표, 악상기호, 연주 용어정리, 지판구조와 기본 음계, 코드표 보기, 스트로크 기본 유형, 16비트 혼합 스트로크	체계적으로 기본기와 이론을 설명하고 초보부터 리듬 패턴들을 정리하여 곡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지판의 구조에 따른 코드 모양을 유형별로 설명 코드 운지를 다장조부터, 중장년층 대상
	16~26	음계(멜로디) 연습곡 6곡	
	27~252	주법 패턴별로 연습곡 수록(116곡) TAB 악보 적용연습곡(3곡)	
		퍼커시브 주법 기초(2곡), 퍼커시브 주법 연습곡 및 실전곡(5곡), 하이코드 익히기, 하이코드 연습곡(6곡), 필수 테크닉 및 필수 테크닉 훈련 곡(4곡), 필수 명곡(2곡)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8~19	기본지식(기타 각부 명칭, 자세, 피크와 스트로크, 음이름, 지판 음정, 튜닝, 도수, 코드표, 오픈 코드 잡기, 암호명, 곡의 구성)	곡을 통한 연습은 후반부에 넣고 처음부터 기본적인 기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편집, 중장년층 대상 선곡
	22~40	오픈 코드(기타 코드 설명)	
	44~52	비트와 스트로크	
	56~64	하이코드	
	70~76	스트로크 확장(뮤트와 커팅, 브러싱, 장르별 리듬 스트로크)	

	80~156	기타 연주곡 수록(39곡)	
마구마구 기타 교본	8~18	미리 알기(기타 각 부분의 명칭, 기타의 종류, 지판과 음정, 튜닝, 기초 악전, 코드표, 자주 사용하는 코드, 줄 누르는 방법, 기본자세, 스트로크)	코드와 스트로크를 통한 곡 연습 후 기타 음계 익히기 CD 제공
	22~94	코드와 스트로크(35곡을 통한 코드와 리듬 스트로크 연습)	
	102~110	멜로디 연주(타브악보, 음계 익히기)	
	114~142	나만의 레퍼토리(15곡 수록)	
기타 폼나게 쳐봐! (초급)	4~10	기타의 종류, 구조와 명칭, 자세, 왼손 모양, 피킹	음계를 익힌 후 코드 익히기
	12~18	음계 배우기, 기본 코드표	코드 익히기 쉬운
	20~28	A, D, E 코드 익히기(6곡), C, G 코드 익히기(2곡)	코드 순으로 편집
	32~116	코드와 리듬 패턴, 아르페지오 익히기(38곡)	코드 잡기에 손 모양 사진 제시
	128~142	기초 악전, 조율, 기타 줄 교체, 기타관리, 초급에서 잘 쓰이는 M7, sus4 코드	QR코드 제공
낭만의 기타(초급)	8~18	기타에 대하여(기타란, 역사, 종류, 구조, 배우려 하시는 분들의 질문)	기타의 역사와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음
	20~24	시작하기(기타를 배울 때 필요한 것들, 조율하기, 악상기호, 기타를 배우는 데 알아 할 용어)	중·장년층을 위한 노래 선곡
	26~86	코드 배우기(연주 자세, 피크 잡는 법, 스트로크, 지판 배우기)	코드 연주가 사장조부터
		A, D, E 코드/2박자, 4박자, 트로트 리듬(2곡)	
		G, C, D 코드/왈츠 리듬(2곡), D, G, A 코드/4비트 리듬(3곡), E, A, B7 코드(1곡), Am, Dm, E7 코드(3곡), Em, Am, B7 코드(2곡), 같은 코드 다른 운지, 코드 배우기 종합 곡(8곡), 트로트 리듬의 이해와 변천	
	88~124	8비트 리듬과 스트로크(8비트 리듬, 코드 바꾸기, 칼립소리듬(2곡), 고고리듬(2곡), 스타카토(2곡), 8비트 리듬과 스트로크 종합 연습곡(7곡), 칼립소리듬과 고고 리듬의 차이	
	126~172	초보 벗어나기(F 코드 4곡, 슬로우 고고 4곡, BM 코드 2곡, 뒤섞기 리듬 3곡, 빠른 슬로우 고고 2곡, 아르페지오 4곡)	
176~212	종합연습곡 19곡		

분석 교재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타 연주를 위한 기본 기능과 기타 연주에 필요한 음악적 기초지식을 포함하며, 악곡을 통한 코드 익히기, 비트나 장르별 리듬 익히기, 와 핑거링, 연주 테크닉 등이 수록되었고, 목차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 연주를 위한 기본적 연주 기호나 음악 악상기호는 전 교재 공통 수록되었고, 기타의 구조나 종류, 역사,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수록 내용과 방법은 차이가 난다.

둘째, 연주의 학습 단계를 코드를 우선하여 먼저 수록 제시하는 교재와 기타의 음계를 먼저 익히도록 하는 교재로 구별되었다.

셋째, 코드 학습과 리듬 학습을 별도로 구분하여 연습하도록 하고 이후 곡을 통하여 숙달하도록 편집한 교재와 곡과 동시에 코드를 연습하도록 하는 교재로 구분되었다.

넷째, 코드 학습을 단계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교재에 따라서 코드 익히는 순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다섯째, 곡의 리듬을 고고 등의 장르로 구별한 교재와 8비트 등 비트로 구분한 교재, 이를 혼용한 교재로 나뉜다.

## 2) 음악적 관점

음악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교재의 음악적 정보와 구성, 수록 악곡의 조성과 리듬, 연주를 구성하는 코드 및 음계, 리듬 연주와 아르페지오 연주법 등 기타 연주에 필요한 필수적인 음악지식과 기능이다. 기타 연주에서 음악지식은 설문 분석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듯 연주 수준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음악지식은 기타의 연주에서 기능적 요소와 결합할 때 수준 있는 연주가 가능한 것으로 이론에 관한 분석은 박자와 조성, 코드, 리듬, 악곡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① 박자 및 조성

분석 교재의 악곡은 총 316곡으로 박자는 고고 계열의 4/4 박자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왈츠풍의 3/4박자, 6/8박자 곡도 있다. 조성은 장조가 250곡, 단조가 66곡으로 분석되어 장조곡이 79%를 차지하고 있고, 장조를 보면 C장조의 곡이 가장 많고, G, D, A 장조곡 순이며, 단조의 경우는 Am 와 Em 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코드가 주로 개방현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운지가 쉬운 이유로 분석된다. 또한, 대부분

교재는 학습자를 배려하여 어려운 조는 이조 하여 카포를 활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리듬 스트로크나 아르페지오 연주 시 코드 운지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줄여 리듬 스트로크나 아르페지오 연주 습득에 초점을 맞춘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교재에 나타난 교재별 박자와 조성을 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악곡 박자 및 조성

제 목	박자								조성								
	3/4	6/8	2/4	4/4	A	C	D	E	Eb	F	F#	G	Am	Bm	Cm	Dm	Em
올바른 기타 교본 (114곡)	14	6	2	92	6	43	8	9	1	3		18	13	1	1	3	8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39곡)				39	5	6	10	1		2	1	12	1				1
마구마구 기타 교본 (45곡)	4		1	40	11	13	7	2				10	2				
기타 폼나게 쳐봐! (46곡)	1			45	9	9	6	2		1		12	3			1	3
낭만의 기타 (72곡)	5	2	12	53	3	9	12	3		1		15	18			1	10
합계 316곡	24	8	15	269	34	80	43	17	1	7	1	67	37	1	1	5	22

## ② 코드

기타 연주의 기술적 부분에서 코드와 주법은 가장 핵심적 요소로 기타 연주하면 코드를 잡고 리듬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주요 연주법이다. 그중에서도 코드가 가장 중요한데 기타 연주는 화음으로 리듬을 만들고 목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으로 음악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음악적으로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코드는 개방 현 코드부터 숙달한 후 F 코드와 같은 바레 코드 순으로 익히며, 개방현 코드를 복사하는 원리로 하이코드를 익힌다. 코드 학습방법과 연주곡의 코드 적용 위계 순서는 기타 학습에서 초보자에게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코드 잡는 문제는 초보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단계적 학습을 통하여 점차 기능을 발달시켜야 한다. 분석 교재에서 적용한 코드 학습방법과 코드 및 적용 위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코드의 종류와 코드 학습 위계

제목	코드
올바른 기타 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의 구성 원리와 코드표를 제시, 하이코드 구성 원리를 기타 지판 그림을 통하여 설명</li> <li>•코드 위계 : C, G7, F, Am, Dm, G, D, D7, Em, A7, G7sus4, A, E7, Am7, B, E, Em7, Dm7, Bb, C7, A7sus4(122개 악곡을 리듬 학습 위계에 따라 배치)</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장조 노래를 초반부에 넣어 F 코드로 초보자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F 코드는 약식코드를 제안)</li> </ul>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의 구성 원리와 코드표 제시</li> <li>•개방현에서의 코드를 메이저(M), 마이너 코드(m), 세븐스 코드(7), 메이저 세븐스 코드(M7), 마이너 세븐스 코드(m7), 서스포 코드(sus4), 투 코드(2)로 단계적 설명</li> <li>•코드 위계 : D, A, D, G, A7, Em, Bm, D7, C, B7, Am, Dm, F(39개 악곡을 리듬학습 위계에 따라 배치)</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곡과 코드를 분리하여 먼저 코드 이론과 음정, 개방 현에서 사용하는 코드부터 장조, 단조, 7<sup>th</sup>. 하이코드 순으로 위계에 따라 코드표를 손가락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리듬에 따른 코드의 연습을 하도록 함</li> </ul>
마구 마구 기타 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 구성이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없고 코드표만 제시됨</li> <li>•코드 위계 A→ E→ E7→ D→A7→ D7→ G→ G7→C→ Em→ B7→ Dm→ Am→ Cm→ F(코드 연습 악곡 35곡에 한함)</li> </ul>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 연습을 위한 악곡을 쉬운 코드부터 익히면서 새로운 코드가 나오는 악곡을 추가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익히도록 하며, 본 악곡을 연주하기 전에 연습 리듬 악보를 제공하여 선 연습 후 본 악곡 연주토록 함</li> </ul>
기타 폼나게 쳐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의 기본 이론 없이 코드표 제시(오피움을 기준으로 장조, 단조, 세븐스, 마이너 세븐스)</li> <li>•곡 연주 전 코드표와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이해도 향상</li> <li>•코드 위계 : A, E, D, C, G, D, D7, E7, Am, Dm, C, Em, A7, B7, Am7, Dm7, F, Bm, Bb, Gsus4, Cm, B, CM7, FM7, Csus4, DM7, Asus4,</li> </ul>

F#m7, Dsus4(연주 악곡 48곡)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 구성 및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음</li> <li>•악곡 배치를 코드 운지가 쉬운 악곡부터 배치하고 코드 연습 리듬 악보를 제시하여 선 연습 후 본 악곡을 연주하도록 함</li> </ul>
<p>낭만의 기타</p>	<p>코드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의 구성 및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이 코드표 제시</li> <li>•키 별 3화음 코드 제시</li> <li>A, D, E7/ G, C, D/ D, G, A7/ E, A, B7/ Am, Dm, E7/ Em, Am, B7/ B7, F, G7(연주 악곡 72곡)</li> </ul>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 별로 코드를 익히도록 코드표와 사진을 게재하여 화성적 접근을 하였으나 코드의 이론적 설명이 없음</li> </ul>

<표 26>은 분석 교재의 연습 악곡 및 수록 악곡에서 초보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모든 교재는 기본적으로 코드표를 제시하고 리듬에 따른 코드 연습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올바른 기타 교본’과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를 제외하고 코드의 구성 원리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 없다.

코드 학습방법은 <표 26>에서와 같이 코드 학습을 리듬 연습패턴에 따라 곡 연주 전에 별도로 연습하도록 하여 곡 연주에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바로 곡에 적용하여 연주하는 경우로 나뉜다. 분석 교재에서 한 교재를 제외하고 다른 교재는 코드 학습 위계를 A장 조나 D 장조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조에 비하여 쉬운 코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코드의 학습 위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초보자가 처음부터 어려운 코드를 접하는 경우 중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초보자가 비교적 적용하기 쉬운 코드 순으로 악곡을 편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새로운 코드가 나오면서 익히도록 하는 교수법이 학습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 ③ 리듬

기타의 리듬 학습은 코드로 화음을 연주하며 이 화음으로 곡의 리듬 패턴을 연주하는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타의 리듬은 단순하게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는 리

음과 다르게 코드 운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리듬 분석은 코드의 적용과 연계 되어 리듬 학습 위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코드와 리듬 학습 위계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학습방안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무리 화려한 리듬도 코드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나 리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코드와 리듬을 연계한 학습 위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고든의 리듬 학습 위계에 의하면, “첫 단계로 2박자계와 3박자계를 가르치지만, 이 박자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웬만큼 학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이전 단계의 학습을 병행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타의 리듬 학습도 단계적 위계를 적용하여 학습함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분석 교재는 리듬 학습 위계별로 리듬을 전개하고 있으며 코드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교재와 리듬을 중심으로 코드를 연계하는 두 종류로 대별 된다. 교재별 리듬 학습 위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리듬 학습의 위계

교재명	제시된 리듬 학습순서	비고
올바른 기타 교본	4비트 다운(1곡) → 4비트 다운 업(1곡) → 3/4박자 왈츠(4곡) → 6/8박자 왈츠(3곡) → 칼립소(8곡) → 슬로우 락(4곡) → 슬로우 고고(6곡) → 컨트리(3곡) → 고고(6곡) → 스윙(5곡) → 셔플(4곡) → 보사노바(2곡) → 뮤트주법(1곡) → 트로트(3곡) → 폴카(2곡) → 베이스 콤비네이션(2곡) → 소울(2곡) → 커팅 주법(6곡) → 디스코(3곡) → 탱고(2곡) → 아르페지오(20곡) → 핑거링과 스트로크 혼합(8곡), 스리핑거(10곡) → 퍼커시브(5곡)	리듬 위계에 따라 코드를 병행함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3비트, 6비트(리듬악보) → 8비트(리듬 악보) → 12비트, 셔플(리듬 악보) → 16비트(리듬 악보) → 뮤트 → 커팅 → 브러싱 주법	리듬을 제시하고 연습할 수 있는 리듬 악보 제시
마구마구 기타 교본	4비트 다운 스트로크 → 4비트 다운(4곡) → 3비트 다운(1곡) → 4비트 다운(5곡) → 2, 3, 4비트 다운 고·저음부 분리(11곡) → 8비트 스트로크(7곡) → 16비트(3곡) → 왈츠(1곡) → 슬로우 락(1곡) → 셔플(2곡)	코드 위계에 맞춰 리듬 위계를 병행함



기타 폼나게 쳐봐! 4비트다운(8곡)→ 8비트다운 업(2곡)→ 3비트(1곡) → 4비트다운(2곡)→8비트 다운 업(3곡)→칼립소(5곡), 고고(4곡) 리듬 위계와 코→고고 커팅(2곡)→엇박자 8비트(1곡)→16비트(2곡)→컨츄리(3곡)→발라드(3곡)→아르페지오(5곡) 드 위계를 병행

낭만의 기타 2/4박, 4/4박 트로트(16곡), 3/3박·6/8박 왈츠(4곡)→칼립소(2곡)→고고(2곡)→8비트 스타카토(2곡)→8비트 종합 코드 학습 위계(8곡)→왈츠(1곡)→트로트(1곡)→고고(1곡)→칼립소(1곡)→슬로우 고고(4)→칼립소(1)→슬로우 고고(1)→셔플(3곡)→ 빠른 슬로우 고고(2)→ 아르페지오(4곡), 리듬을 정리함

상기 곡목 수는 리듬 연주에 적용된 곡 수를 적용한 것이다.

다음은 교재에 나타난 기타 리듬의 종류에 대한 분석이다. 리듬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한 분석 없이 위계를 정리하기는 어려우므로 리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타 연주는 리듬 연주로 발달하여 왔고 리듬 스트로크 연주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분석 교재에서 리듬은 소울(Soul), 셔플(Shuffle), 트로트(Trot) 등 곡의 장르에 따라 구분하는 것과 4비트, 8비트, 12비트와 같이 곡의 박자별 비트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음악의 리듬을 어느 특정 장르로 국한하여 구분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타 교재의 학습방법의 하나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초보 학습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초급교재는 이와 같은 장르별 구별에 따라 리듬 연주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 교재에서는 교재의 구분에 충실하게 따라 장르를 구분하였고 구분이 없는 경우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분류된 리듬 패턴별 통계를 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리듬 패턴별 악곡 수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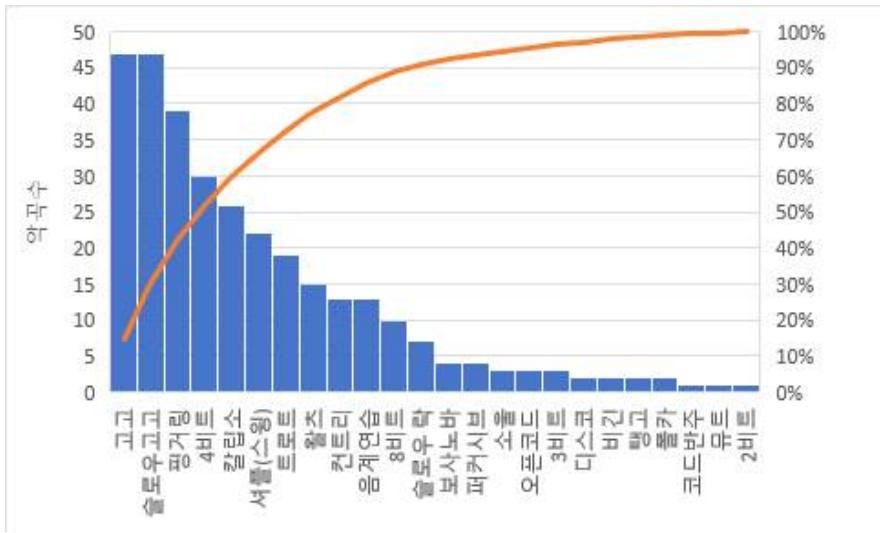
장르(비트)	올바른 기타 교본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마구마구 기타 교본	기타 폼나게 쳐봐	낭만의 기타	계
고고	12	13	3	11	8	47

슬로우고고	10	12	4	5	16	47
핑거링	30			5	4	39
4비트			19	10	1	30
칼립소	8	1		5	12	26
셔플(스윙)	9	4	1		8	22
트로트	3				16	19
왈츠	7		1		7	15
컨트리	7	3		3		13
음계 연습	4		9			13
8비트			4	6		10
슬로우 락	4	2	1			7
보사노바	4					4
퍼커시브	3	1				4
소울	2	1				3
오픈 코드	3					3
3비트			2	1		3
디스코	2					2
비긴		2				2
탱고	2					2
폴카	2					2
코드 반주	1					1
뮤트	1					1
2비트			1			1
계	114	39	45	46	72	316

<표 28>에서 분석대상 교재별로 수록한 악곡의 리듬 종류는 교재가 목표로 하는 대상에 따라 특징적 차이를 보인다. ‘올바른 기타 교본’은 학습자들에게 리듬의 다양한 유형을 익히도록 많은 악곡을 수록하였고, ‘낭만의 기타’는 트로트 리듬 곡을 많이 수록하였으며, 나머지 3권은 기본리듬의 충실한 연습을 위한 곡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재는 고고와 슬로우 고고 리듬 곡은 빠짐없이 다루고 있으며, 교재에 따라 4비트나 8비트

로 구분된 리듬도 고고와 슬로우 고고 리듬으로 분류한다면 기타 리듬은 대부분 고고와 슬로우 고고의 8비트와 16비트 리듬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에 수록된 기타 리듬의 종류를 보면 고고, 슬로우 고고, 핑거링, 칼립소 등 매우 다양하다. 기타의 리듬은 전통적인 포크 음악에 뿌리를 두고 발달해왔고 기타 세대들의 포크 음악이 대중음악 속으로 들어오면서, 기타를 통한 대중음악의 연주는 대중가요의 리듬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대중음악의 발전과 유행 추세에 따라 리듬도 변화하고 연주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기타 연주 또한 기존 스트로크 위주의 리듬 연주에서 핑거링이나 퍼커시브, 뮤트, 브러싱, 하모닉스 등 다양한 연주법이 유행하고, 코드도 3화음, 4화음 코드에서 텐션 코드, 오픈 코드 등 다양한 코드로 화성적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에 수록된 리듬의 종류를 순위별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교재 악곡 리듬 종류별 분포도

#### ④ 스케일

기타에서 스케일은 멜로디 연주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기타는 피아노와 달리 직관적 악기가 아닌 블록별로 모양에 따라 음계가 만들어지므로 코드 연주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스케일 연습을 통하여 멜로디 연주를 하여야 한다. 초보자도 처음부터 운지 연습을 겸하여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는 개방 현의 스케일부터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권장된

다. 분석 교재의 스케일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스케일 분석내용

교 재 명	스케일 분석
올바른 기타 교본	피아노 건반을 이용하여 음이름과 온음 반음 관계, 음정을 함께 설명하고 있어 독립적인 스케일 설명은 아니나 자연 장음계의 스케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선 악보를 이용하여 기타 3프렛까지의 음계를 설명하고 있고, 오선보 노래 악곡의 음이름에 기타 지판의 음 위치를 설명하고 있어 스케일 설명을 보충한다고 보임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장음계 스케일과 음이름을 설명하고 있고 피아노 건반을 이용하여 반음 음정을 설명하고 있음
마구마구 기타 교본	지판의 음정 설명은 있으나 스케일에 관한 설명은 없음
기타 폼나게 쳐봐!	지판의 음계 설명은 있으나 스케일에 관한 설명은 없음
낭만의 기타	전체 지판의 음계 설명도 없고 스케일에 관한 설명이 없음

### ⑤ 악곡 목록

기타 교재는 학습자의 수준과 연주목표, 인지적 수용 능력과 기능적 요소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에 따라 구성되나 악곡 선정의 초점은 대중성이다. 즉, 기타 초보학습에서 코드를 통한 리듬 연주에서 익숙한 곡을 통한 연주 기능의 습득이 빠른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의 음악적 성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연주는 잘 알고 있는 악곡은 연주해보고 싶고 관심도 가지지만 알지 못하는 곡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유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곡의 선정은 교재가 대상으로 하는 독자층의 성향을 고려하여 누구나 잘 아는 동요 또는 잘 알려진 대중가요 등을 선곡하고 있다.

분석대상 교재의 악곡분포를 보면, 총 악곡 316곡 중 가요 227곡으로 71.8%, 팝송 26곡으로 8.2%, 동요 52곡으로 16.5%, 캐럴 11곡으로 3.5%로 구성되어 있다. 대중가요 악곡이 대부분이나 멜로디 연습이나 코드 연습곡으로 동요나 캐럴 등 익숙한 곡이 사용되었다. 악곡에 두 번 이상 나오는 39곡으로 이들 악곡을 보면 기타 교재 연습 악곡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0>에서 와 같이 익숙한 악곡들이 등장한다. 코드 학습이나 초보자 학습에서는 무엇보다 익숙한 악곡 및 선호하는 장르의 악곡을 선정하여 학습하는 것이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표 30> 수록곡 목록

수록횟수	수록곡 명(316곡)
5회(1곡)	여행을 떠나요 (1.6%)
4회(1곡)	울챙이와 개구리((1.3%)
3회(5곡)	나비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등대지기, 잊혀진 계절, 일어나((4.8%)
2회(32곡)	나는 행복한 사람, 나성에 가면, 내 나이가 어때서, 너는 내 운명, 널 사랑하겠어, 담다디, 돌아와요 부산항에, 동백 아가씨, 모닥불, 밥만 잘 먹더라, 봄봄봄, 비와 당신, 산토끼, 솜사탕, 아빠와 크레파스, 얼굴, 에델바이스, 여행을 떠나요, 연가, 열 꼬마 인디언, 옛 시인의 노래, 울면 안 돼, 이등병이 편지, 작은 별, 조개 껍질 묶어, 코끼리 아저씨, 터, 텔레비전, Creep, Hey Hey Hey, Knock in' on heavens door, Yesterday (20.3%)
계(39곡)	총 39곡의 악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 27.9%

### 3) 기능적 관점

기타 학습에서의 기능 요소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실제 연주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 요소로 자세나 튜닝, 기타의 관리, 피크 잡는 법 및 피킹 요령, 코드 잡는 법과 바꾸는 요령, 스트로크하는 법과 예쁜 소리내기 요령, 고음부 저음부 분리, 커팅, 뮤트, 브러싱, 벤딩, 슬라이딩, 해머링, 풀링 오프, 글리산도 등 다양하다. 분석 교재의 기능적 요소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 교재의 기능적 요소

교재명	기능적 요소
올바른 기타 교본	자세나 피크 잡는 법, 스트로크 요령 등 기본적 설명이 없음 해머링 온과 폴링 오프 설명과 실습 악곡, 슬라이드 글리산도 설명과 실습 악곡, 초킹과 비브라토 설명과 실습 악곡.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기본적인 준비사항, 연주 자세, 피크 쥐는 법과 스트로크 주법 설명, 튜닝 설명, 코드표와 손가락 번호, 각 코드를 코드표와 함께 사진 첨부 설명, 뮤트, 커팅, 브러싱을 사진을 통하여 설명.
마구마구 기타 교본	줄 누르는 법, 기본자세, 피크 쥐기 및 스트로크 자세 및 요령 설명, 손가락 스트로크 자세 설명, CD 연주 음원 제공
기타 폼나게 쳐봐!	연주 자세, 코드 손 모양, 피크 쥐는 법, 스트로크 요령, 코드 모양과 함께 사진 제시, 조율하기, 기타 줄 교체, 관리와 보관, QR코드로 모범연주와 MR 제공
낭만의 기타	조율, 피크 잡기, 자세와 피킹 요령, 코드 손 모양, 스타카토 연주, 고음부 저음부 분리

### 3. 교재의 비교 및 평가

‘올바른 기타 교본’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초·중급 이상 학습을 목표로 한 교재로 초보자가 혼자 독습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을 아는 학습자에게는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연주 장르를 리듬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연주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고 하이코드의 적용을 개방 현의 코드를 통한 복사원리를 잘 설명하여 쉽게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주곡을 수록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목표를 끌어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한 권에 넣다 보니 다소 편집이 산만하고 학습 도중 지칠 우려가 있어 좀 더 간략하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라는 기타를 처음 접하는 중·장년층의 초보자에게 맞춰진 교재로 초보자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독습용 교재로 제작되었다. 기타의 구조

와 기타 연주를 위한 준비물 등 조율부터 음계와 음정의 설명, 코드 이론에 관한 설명과 코드표와 코드 잡는 손 사진을 포함한 구성이 돋보이고, 코드를 익히기 위하여 주어진 리듬에 따라 연주를 하도록 하여 코드 바꾸기가 충분하게 되도록 배려하였으며, 코드와 리듬 연계가 상호 위계학습의 균형을 잘 잡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책 표지에 코드표를 게재하여 쉽게 코드표를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점과 악곡의 앨범 정보 제공도 우수한 점으로 보인다.

‘마구마구 기타 교본’은 비교적 젊은 세대를 목표로 제작된 교재로 코드의 위계에 따라 리듬 스트로크 위계도 연계하여 코드와 리듬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 리듬 악보와 악곡을 제공하였다. 새로운 코드는 기본코드를 익히고 난 후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함으로써 기존 코드와 함께 익히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CD 음원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폼나게 쳐봐!’는 초보자 독습용 교재로 QR코드를 통한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모범 연주와 함께, 반주 음원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악곡의 반주와 리듬을 듣고 따라 할 수 있도록 함이 특징이다. 코드와 리듬 학습 위계에 따라 적절하게 초보자 코드 학습 단계를 유도하고 있고, 코드 바뀔때와 스트로크 요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다.

‘낭만의 기타’는 중·장년층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다. 이례적으로 기타의 역사와 발달과정, 종류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악곡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트로트 곡이 많다. 코드 위계에 적합하나 16비트가 포함된 리듬 악곡을 처음부터 수록하여 초보자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 교재 전반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박자와 조성, 코드, 리듬, 스케일, 악곡 등과 기능적 요소를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분석 교재는 일정 수준을 목표로 하는 기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학습 목표에 따라 내용 요소의 차이가 나고, 기본적인 악전과 기능적 요소는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음악 이론의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기능 위주의 학습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교재를 접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교재 내용이 학습 전부로 인식하고 향후 학습의 지향점을 찾지 못하여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도중에 그만두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주의 기능적 요소 및 음악의 이론적 요소가 병행되는 교재가 요구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타 교수·학습을 위한 성인 기타 학습자 인식조사 및 교재 분석으로 성인 기타 학습에 필요한 음악 요소 및 기능 요소를 살펴보고, 성인 학습자의 인지특성과 학습 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기타 교수·학습의 효율적 지도를 위하여 기타 학습자 인식조사를 통하여 성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실태, 성취도 등의 분석을 하였고, 교재 분석을 통하여 성인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 조사 학습자 평균 나이는 50.5세로 중·장년층이며, 성인들의 기타 학습 동기는 50.9%가 노래 반주를 위하여 배우게 되며, 목적은 45.5%가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성인들이 기타를 배우는 동기와 목적은 기타 연주를 통한 여가 선용과 취미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타 교수·학습의 방향은 학습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기간이 기타 연주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학습기간은 음악지식, 연주수준, 성취수준, 성취도, 음악 이해도, 웹 활용도, 권장 여부 등과 유의 상관이 있으며 연주수준과 음악지식을 가능해준다.

셋째, 기타 학습이 성인들의 음악적 이해도를 넓히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학습을 통한 음악적 지식과 소양, 음악적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이 82.8%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성인의 음악적 성장에 기타 학습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인들은 기타 기능학습과 함께 이론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론이 병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항에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4.5%,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7%로 87.2%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학습자는 음악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는 학습을 통해서 연주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문학원에서 불만족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이 39.7%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단체학습에서는 수준별 학습제한과 개별지도시간 부족 문제에 대한 불만이 67.2%로 나타났다. 강사에 대한 불만족 사유는 ‘교수법’이



42.4%로 가장 크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수법의 개발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타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을 보면 ‘코드 잡기’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초보의 코드 운지는 쉬운 코드 순으로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이번 설문에서 코드 운지가 가장 쉬운 코드 순을 보면 A, E, D 코드였으며 어려운 코드는 G, F 코드를 들었다.

일곱째, 기타 교재의 보완내용을 보면 ‘체계적 이론의 보완’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음악적 기초이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학습 교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유튜브 등 웹을 활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많고, 특히 연주수준과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대면 정보화 시대에 웹을 이용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및 웹과 연계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학습이 필요하고, 교재 제작 시에 웹을 이용한 콘텐츠의 공유,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교재 분석에 사용된 5권의 분석을 요약하면, 일정 수준을 목표로 하는 기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구성으로 기본적인 악전과 기능적 요소는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음악 이론의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학습자 대다수는 음악적 이론학습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의 음악적 성장 요구를 반영한 이론적 배경 학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은 성인 학습자의 기타 지도를 위한 제언이다. 성인 학습자의 기타 학습은 성인의 인지특성과 태도, 삶의 경험과 자아개념 등 성인의 특성에 대한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성인의 특성에 따른 지도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주며, 반복 학습한다.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반응이 더디므로 충분한 연습시간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반복 학습을 통하여 극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별 학습능력과 성취수준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한다. 학력이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개인별 성취수준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인식 능력과 및 신체적 기능 차이가 기타 학습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교수자는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며 성인 학습에 임해야 한다.

셋째, 성인들의 음악적 이해도 수준을 고려한다. 일반성인들의 음악적 이해도는 높지

않다. 더구나, 성인들은 학교 음악교육 경험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쉬운 내용도 이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방법을 성인 눈높이와 특성에 맞게 적절한 비유와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끼리의 소통과 및 교수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성인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하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지도자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질과 참여율, 학습성도가 높아진다.

다섯째, 교수자의 자질 문제이다. 교수자의 전문성과 교수법 문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불만족 요인이 되고 있다. 기타를 가르치는 대부분 강사는 교육학적 지식과 성인학습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경우가 드물며, 성인학습에 적합한 학습이론이나 교수 방법을 찾지 못함으로써 학습자와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거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강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발급은 자격증 발급요건을 객관화시키고 엄격한 관리하에 발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사 교육에는 성인학습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과 교육자의 품성과 교육적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 나아가 음악적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타 강사는 학습자를 가르치는 기능적 능력과 더불어 교육자적 품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타의 효과적 교수·학습을 위하여 성인 기타 학습자와 교수자에 대한 기타 학습 인식조사와 교재 분석을 통하여 성인 기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기타 교수·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 악기이며 음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악기인 기타에 대한 사회음악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전공 영역에서의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병서, 김계수(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한나래 출판사.
- 강호진(2010). 기타(guitar)를 활용한 기악 활동 지도 방안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대봉(2006). 성인교육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2018). 음악과 교재연구. 서울: 학지사.
- 김동휘(1996). 성인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성해(2006). 탭-플레이트 두께 변화에 따른 어쿠스틱 기타의 음향학적 연구특성.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김영수(2018). 기타 동호회 활동 참여 동기가 몰입경험과 여가 만족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김영표(2020). 기타 연주 입문자를 위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부산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찬(2002). 한국 초기 기타 음악의 사적 연구. 1975년까지 사회사적 흐름과 작가를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김희정(2005). 성인 초보자를 위한 플루트 교재연구 및 지도 방안.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경섭(2016). 제대로 알고 쓰는 통계분석 : SPSS & AMOS 21. 서울: 한빛 아카데미.
- 노형주(2017). 클래식 기타 트레몰로 주법 연습방법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류칭웨이(2018). 기타 학습을 도와주는 피드백 기반 경험 학습 인터랙션 패턴 제안.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민경훈, 김미숙, 김선미, 김신영, 김영미, 김지현, 이가원, 장근주, 조대현, 조성기, 주희선, 현경실 (2017). 음악 교수 학습방법. 서울: 학지사.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 (2019). 음악 교육학 총론(3판). 서울: 학지사.
- 박해민(2018). 기타 폼나게 쳐봐!. 경기도: 아름출판사.

- 삼호뮤직 편집부(2002). 파플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2002). 서울: 삼호뮤직.
-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1986). 음악용어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1986).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송문섭(2000). 기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뉴송편집부(2017). 어쿠스틱 기타는 이렇게 친다 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유세현(2020). 올바른 기타 교본. 서울: 티나.
- 이현림, 김지혜(2006). 성인학습 및 상담(2판). 서울: 학지사.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 (2016). 음악 교수법. 서울: 학지사.
- 일신음악연구회. 마구마구 기타 교본. 서울: 일신 미디어.
- 임영신(1999). 비전공 성인의 음악교육방법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웅, 김지자(1995). 사회 교육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수현, 이병용(2020). 낭만의 기타. 서울: 민스뮤직출판.
- 한상길(2001). 성인 평생교육. 서울: 양서원.
- Blacking J.(1998).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 채현경 역. 서울: 민음사.
- Larousse de la musique(1998). 라루스 세계음악사전. 서옥석, 김원구 역. 서울: 탐구당.
- Matthews, M. W.(2004). 세계의 악기 백과사전: 악기의 기원과 발전. 이용일, 나재용, 양은주 역. 서울: 교학사.
- Merriam, S. B., Bierema, L. L.(2018).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최은수, 신승원, 강찬석 역.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부록 1.

## 기타(Guitar) 교수 · 학습 계획

성인 학습자를 위한 기타 교수·학습 계획은 매주 2시간 15주 과정의 지도과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이 교수·학습 계획은 기타의 기본적인 기능이론과 교수·학습 활동 및 유의점으로 구분하였다.

지도안 작성의 핵심요소는 초보자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학습을 익히고 이 학습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 지향점을 찾아 스스로 학습 방향을 결정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학습 위계는 코드 학습 위계와 리듬 학습 위계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구성하였고, 리듬들은 기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듬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15주 동안에 필요한 이론이나 수준 있는 연주를 가르칠 수도 없고 학습자들 또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기타 기본에 대하여 배우고 더 발전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인들의 학습은 매우 느리게와 반복 학습으로 요약되므로 매 차시 전시학습을 계속하여 반복하면 성인들은 목표의식과 스스로 관리능력이 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기타 학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리듬과 코드 학습을 통한 성인 초보자 통기타 교수·학습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초보자 악곡의 선정이다. 연습곡은 학습자가 잘 아는 곡을 선정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잘 아는 노래이므로 동기유발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노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주 리듬 기타를 치게 되면 기타 코드를 잡고 리듬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멜로디와 화성적 연계의 감성이 떨어져 단순 운동 기능적 역할에 머물러 음악적 오디에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한, 리듬은 단순한 3/4박자의 왈츠곡이나, 4/4박자 4비트나 8비트 느린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교수자가 먼저 시범 연주를 통하여 곡 전체의 음악적 흐름을 느끼도록 한다. 선택 악곡의 음악적 특징 즉, 박자, 조성, 키, 선율, 코드 및 리듬에 대하여 설명하고 직접 연주를 통하여 학습자가 충분하게 곡의 주선율과 리듬 패턴 등을 음악적으로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준다.

셋째, 연습이 필요한 리듬은 리듬 숙지를 위하여 손뼉 등 신체 동작과 함께 리듬 음절로 노래하듯 부르며 익힌다.

넷째, 약 2마디 단위로 코드를 바꾸면서 리듬을 익히도록 한다. 코드 교체 시 곡이 느려지고 교체 후 빨라지고 하는 경우가 없도록 곡 전체 빠르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면서 코드 교체를 하면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는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빠르기를 조금씩 높여 연습하도록 한다.

다섯째, 기본리듬을 익히는 것은 위 단계와 같이 차례로 익히고 점점 다양한 변화 리듬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준다. 또한, 코드 반주를 하면서도 노래의 키를 못 잡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이때에는 으뜸음과 주선율을 기타로 들려주고 올바른 키를 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리듬 연주와 동시에 반드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연주하도록 한다. 초보 때는 이러한 연계작용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초보 때부터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점점 익숙해질 수 있다. 만약에 초보 단계에서 이처럼 노래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기타 연주에 익숙해진 후에도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초보 때부터 어렵더라고 무조건 따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타가 가진 최대의 장점인 노래 반주를 함으로써 연주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노래가 멜로디의 기능을 하면서 코드와 리듬이 어우러져 비로소 음악적으로 완성된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화음과 노래 선율, 리듬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한 화성적 감각 및 음정 훈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오디에이션 능력 및 음악적 감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15차시 기타 교수·학습 계획(15주, 주 1회 2시간, 총 45시간)>

주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1	기초	•기본지식 익히기	
		- 음이름 부르는 방법	-학습자의 음악지식 정도와
	지식	1차시 - 오선보에서 음계 읽기 연습	학습 이해도를 파악하고 방
		- 박자의 개념 설명	안 수립
2차시	•기타 알기		-잘못된 피크 쥐는 방법의
	-역사, 구조, 조율,		문제점을 인식시킨다.
	•연주 기본 기능		-학습자의 운동 기능적 능
		-자세, 피크 쥐기, 스트로크(뮤트한 상태로 스트로크 력 파악한다.	

연습하기)지도		
2 연주 준비	<p>•전시 학습확인 후 미진한 경우 미진한 요소 확인 및 재학습하기</p> <p>-스트로크다운 업 연습 3분</p> <p>•왼손의 운지 연습과 음을 내는 방법을 익힌다.</p> <p>- 한 줄만으로 계명을 연주하는 것으로 6번 줄부터 시작하여 12프렛 이상 연주</p> <p>- 기타의 프렛 간격과 장음계의 온음 반음 관계를 이해시킨다.</p>	<p>-1~6현 쉬운 연습 악보</p> <p>-한 줄 악보는 한 옥타브 이상 연주토록 한다.</p> <p>-한음 한음을 또렷이 내도록 지도</p>
	<p>• 개방현 장음계 익히기</p> <p>- 1~3프렛에서 장음계 연주하며 운지를 익히도록 하며, 손가락 기호에 따라 운지하도록 한다.</p> <p>- 다른 줄에 간섭이 안 되게 연주하도록 하며, 왼손과 오른손 피킹 동작에 유의하도록 한다.</p>	<p>-다장조 E~g1 음계 연습 악보준비</p> <p>-한음 한음 맑고 깨끗한 소</p>
3 코드 이론 학습	<p>•전시 학습확인 후 미진한 부분 재학습</p> <p>-개방현 음계 익히기 다시 연습 5분</p> <p>-뮤트 하여 다운 업 스트로크 연습 3분</p> <p>1차시 •코드의 구성과 개념 익히기</p> <p>-장조 스케일과 음정을 설명한다.</p> <p>-장조, 단조 코드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A 코드 구성음과 E 코드 구성음을 알도록 한다.</p>	<p>•학습자들의 음악 이해 정도에 따라 스케일과 음정 설명의 깊이를 조절한다.</p>
	<p>•A 코드와 E 코드 연습</p> <p>-4/4박자 리듬 악곡에 따라 1박에 한 번씩 다운 스트로크를 하면서 코드 바꿈을 연습한다.</p> <p>-전체적으로 박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코드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p> <p>-연주 음이 깨끗하게 나는지 늘 확인 시킨다.</p> <p>-악곡의 음표는 사분음표로 통일한다.</p> <p>•악곡 시범 연주</p> <p>-A 코드와 E 코드로 된 악곡을 준비하여 연주하고</p>	<p>-24마디 연습 악보준비</p> <p>-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악곡 연습과제를 부여한다.</p> <p>-악곡은 2분음표와 온음표</p>

		4/4박자 4비트 스트로크를 시범 연주하면서 차시에 를 포함한다. 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 확인 -메트로놈의 사용 권장 및 이용법 설명</li> <li>-개방현 다장조 음계 연습 5분</li> <li>-뮤트 다운 업 스트로크 연습 3분</li> <li>-전시학습에서 코드 이론 다시 학습 후 재학습</li> </ul>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자에 대한 심화학습</li> <li>-음표와 쉼표 학습</li> <li>-음표의 길이에 따른 스트로크 비트 설명</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 학습</li> <li>-박자와 리듬의 관계</li> <li>-리듬의 종류와 생성, 연주법</li> </ul>
박자 와 코드 / 리듬 기본 학습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장조(E 포함) 악곡 연주 -교수자의 손을 보면서 따라서 연주하는 경우는 박자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된 학습자이므로 잘 파악한다.</li> <li>-전 차시 배부한 리듬 연습 악곡을 미리 준비하여 코드 변경 및 리듬 연습을 한다(전 차시 배부한 온 음표, 2분음표, 4분음표가 나온 악보)</li> <li>-익숙해지면 4/4박자 4비트 스트로크로 연주를 한다.</li> <li>다. 이때 매우 천천히 연주하여 코드 운지 속도에 맞춰 전체 빠르기를 일정하게 조절한다.</li> </ul>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확인</li> <li>-개방현 음계 익히기와 스트로크 연습(5분)</li> <li>-A 장조 악곡의 4/4박자 4비트 다운 스트로크와 코드 운지 확인 재학습</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비트 리듬 연습</li> <li>-다운 스트로크와 업비트 리듬의 특징과 개념을 설명</li> <li>-A 장조 전시학습 곡으로 8비트 다운 스트로크를 부르면서 연습한다.</li> <li>하면서 코드 운지 하기</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비트 다운 업 리듬과 코드 연습</li> <li>-A장조 악곡에서 D 코드를 추가한 악곡을 준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제부터 4비트 다운비트에서 8비트 스트로크 연습을 한다.</li> <li>•박자가 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코드가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li> <li>•익숙해지면 악곡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한다.</li> <li>•업 비트시 과도하게 고음 부 울림이 되지 않도록 하며, 피크를 깊게 넣지 않도록</li> </ul>



		-리듬을 8비트 다운 업으로 한다.	록 한다.
6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의 확인</li> <li>-개방현 음계 연습과 스트로크 연습(5분)</li> <li>-전시학습의 4비트와 8비트 악곡 확인 후 부족한 부분 보충학습</li> </ul>	•8비트 정박자 리듬 연습 악곡을 준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 장조곡의 (G 코드 포함) 8비트 리듬 스트로크 패턴 연습</li> <li>-8비트 정박자 악곡준비</li> <li>-4비트와 8비트 혼합리듬 익히기</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드 및 혼합리듬 익히기</li> <li>-D 장조곡의 유사한 악곡을 통하여 코드와 스트로크다운 업을 익히고 맑고 깨끗한 코드 음을 울릴 수 있도록 한다.</li> </ul>	•코드를 잡고 각 현의 음을 탄현 하면서 코드마다 프렛의 울림이 잘되는지, 간섭은 없는지 확인토록 한다.
7	아르페지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의 확인 후 부족 부분 재학습</li> <li>•아르페지오 연습</li> <li>-3/4박자 왈츠곡을 아르페지오 방법을 통하여 연습한다.</li> <li>-악곡은 G 장조곡(C, Em, D7)으로 준비한다..</li> <li>-아르페지오와 리듬 스트로크 연주를 병행하여 특징을 느끼도록 한다.</li> <li>-리듬 스트로크는 3비트 및 6비트를 병행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 스트로크 도중에 아르페지오 학습을 넣은 이유는 아르페지오는 코드를 잘 누르지 않으면 음이 울리지 않아 스스로 코드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박자 개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에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르페지오 연습</li> <li>-6/8박자 왈츠곡을 아르페지오 및 리듬 스트로크 연주를 병행한다.</li> <li>-리듬 비트는 다운 업으로 한다.</li> </ul>	•아르페지오 연습은 비교적 조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소음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
8	16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의 확인 후 부족 부분 재학습</li> <li>•16비트 Am 악곡(코드 C, Dm, G7, Em)</li> <li>-마이너 악곡과 장조 악곡의 특성을 비교설명</li> <li>-장조와 단조 스케일의 구분 설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 코드는 제외한다.</li> <li>•3차시 설명한 코드 학습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학습</li> <li>•16비트 슬로우 고고 스타</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곡 연주</li> <li>-슬로우고고 스타일의 간단한 16비트 연습 리듬</li> <li>-강약의 구분과 저음부 고음부 구분 연습</li> <li>-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li> </ul>	<p>일의 노래는 아르페지오 연주가 어울리므로 4/4박자 아르페지오 연습도 병행</p>
9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 확인 후 부족분 재학습</li> <li>•16비트 Em 악곡 학습(B7 코드 포함)</li> <li>-전시학습의 리듬을 약간만 변형한 리듬 연습 추가</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약의 구분과 고음부 저음부 분리 연주 연습</li> <li>-아르페지오를 활용한 4/4박자 연주 연습</li> </ul>	
10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확인 후 부족분 재학습</li> <li>•칼립소 리듬 학습</li> <li>-C 장조곡 준비(F 코드)</li> <li>-칼립소 리듬의 연습패턴 준비를 통한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 코드는 쉽게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약식으로 잡도록 하고 익숙해지면 바레 코드로 전환해도 충분하다.</li> </ul>
칼립소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자 및 악센트에 주의하여 피킹</li> <li>-업 동작의 자연스러운 피킹이 되도록 연습</li> <li>-고음부와 저음부의 분리를 통한 화음의 조화를 이루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단계는 칼립소 기본 패턴 연습으로 정리하고 추후 다른 유형을 학습한다.</li> </ul>
11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의 확인</li> <li>-칼립소 리듬의 특징을 구현하고 있는가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li> <li>-칼립소 리듬의 다른 악곡을 통하여 악곡 변화에 따른 리듬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차시까지 개방현 기본적 코드를 어느 정도 익혔으므로 코드 학습의 위계는 마무리할 수 있다.</li> <li>•엇박자 계열과 정박자 계열 리듬 차이 비교</li> </ul>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비트 고고 리듬과 칼립소 리듬의 비교</li> <li>-엇박자인 칼립소 리듬과 정박자 8비트 고고 리듬의 강약 변화와 리듬 특성을 악곡 연주를 통해서 비교해 보고 리듬을 특징을 구별하도록 한다.</li> </ul>	
12	고고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 학습확인</li> <li>•8비트 고고 리듬</li> <li>-8비트 고고 리듬 악곡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고 리듬은 대중가요 연주에 폭넓게 적용 활용되는 리듬으로 그 응용 폭이 매우 넓다.</li> </ul>

		-강 약과 악센트 넣기 -왼손 커팅과 오른손 커팅 연습 -다운 업 동작이 일관되고 리듬 흐름이 일정하도록 유의한다.	
13	슬로우락	1차시 •전시 학습확인 •슬로우락 악곡준비 -슬로우락 3연음의 특징을 설명 -슬로우락 기본 연주 패턴에 따라 연주 2차시 -슬로우락 변화패턴 연주 -고음부 저음부 분리 및 세부 리듬 연습	
14	서플	1차시 •전시 학습확인 •뒤섞기 리듬 악곡준비 -서플, 스윙, 블루스, 바운스 리듬계열의 특징을 구분 설명 -서플 리듬의 속지 및 악곡 연주 2차시 -서플 리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연습 및 확인	•바운스 리듬은 도중에 고리듬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도록 꾸준하게 일관성 있는 리듬 패턴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15	컨트리	1차시 •전시 학습확인 •컨트리 리듬 악곡준비 -컨트리 리듬의 특징과 포인트 설명 -악곡을 통한 컨트리 리듬 연주 2차시 -베이스 러닝 및 알터네이트 베이스 피킹 연습 -다양한 컨트리 리듬 연습	•컨트리 리듬은 빠른 리듬 스트로크와 정확한 피킹 동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부록 2.

## 설문지

이 설문지는 기타의 효과적인 학습과 교수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목표, 유형, 지식, 성취도,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인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방법 및 교재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설문지는 연구용 자료로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기타를 배우면서 느낀 본인만의 소중한 경험을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 3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음악교육전공) 박창수

해당 항목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 25문항, 소요시간 약 10분)

1. [학습동기] 기타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방송 등 기타 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 ②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하면서 불러보고 싶어서
- ③ 멋진 연주곡을 듣고 배워서 연주하고 싶어서
- ④ 주변인의 권유로 인하여
- ⑤ 본인의 정서순화와 자아실현을 위하여

2. [학습목적] 기타를 배우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여가선용이나 취미, 특기를 살리기 위하여
- ② 자신의 음악적 감성 개발과 교양적 소양을 위하여
- ③ 관련 직업 또는 전문연주자가 되기 위하여
- ④ 봉사활동이나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하여
- ⑤ 기타반주에 맞춰 몇 곡 정도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3. [성취 수준] 기타는 어느 수준까지 배우길 원합니까?
- ① <전 문 가> 전문 연주인 또는 교수자 수준
  - ② <고급 수준> 전주 간주, 즉흥성을 포함한 연주 및 반주, 지도할 수 있는 정도
  - ③ <중급 수준> 전주나 간주를 포함하여 반주할 수 있으며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도
  - ④ <초급 수준> 코드를 보고 반주하면서 노래 몇 곡할 수 있는 정도
4. [교육 경험] 음악과 관련한 전문적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①있다’의 경우 4-1번 문항, ‘②없다’의 경우 5번 문항으로)
- 4-1. 4번 문항의 ‘① 있다’의 경우에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예술계열 고등학교 ②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전공 ③ 대학원 전공 ④ 기타(      )
5. [선행지식] 기타를 배우기 전 기타나 음악 관련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요?
- ① 매우 잘 알았다 ② 잘 알았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몰랐다 ⑤ 전혀 몰랐다.
6. [학습기간] 기타를 배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10년 이상 ② 7~9년 ③ 4~6년 ④ 1~3년 ⑤ 1년 미만
7. [음악지식] 현재 귀하의 기타 관련 음악적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8. [연주 수준] 현재 귀하께서는 기타를 어느 정도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친다 ② 잘 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못 친다 ⑤ 매우 못 친다.
9. [음악 이해 향상도] 기타를 배운 후 음악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0. [이론 병행 필요성]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 이론 공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② 병행되는 것이 좋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학습장소]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어디서 배우게 되었나요?

- ① 전문학원을 찾아서
- ②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를 찾아서
- ③ 책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독학으로
- ④ 동호회 형태의 모임을 통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 ⑤ 지인이나 친구, 가족 등을 통하여

12. [학원 만족도] 전문학원에서 기타를 배워 본 경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해당자에 한함>

- ① 교재 및 곡의 선정    ②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    ③ 시간과 거리 등 물리적 환경
- ④ 경제적 여건

13. [단체교습 만족도]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 그룹으로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해당자에 한함>

- ① 교재 및 곡의 선정                      ② 강사의 자질 및 교수법
- ③ 일괄 진도로 인한 개인 수준별 학습의 제한
- ④ 개별별 지도 시간의 부족    ⑤ 학습자 간 소통의 문제

14. [강사 만족도]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교습을 받을 때 강사에게 불만족한 경우 주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성 부족 ② 인성부족 ③ 불성실 ④ 교수법

15. [성취도] 개인 교습이나 그룹 지도의 경우 본인의 성취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16. [포기 요인]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기타를 배울 때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던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 ① 재능 부족 ② 경제적 문제 ③ 시간적 여유 ④ 학습 내용 불만족 ⑤ 강사의 자질

17. [난이도 인식] 기타를 시작하기 전과 배운 후 기타를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①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    ② 생각보다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생각보다 쉽다.    ⑤ 생각보다 매우 쉽다.

18. [어려운 점] 기타를 배울 때(초보) 가장 어려운 점 하나만 고른다면 ?

- ① 코드 잡기    ② 스트로크 기술    ③ 악보 이해    ④ 손가락 통증    ⑤ 조율    ⑥ 자세

19. [부족한 점] 현재 본인에게 가장 부족한 점(기타를 배우는 중이거나 배운 후)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세요

- ① 박자 및 리듬감    ② 노래와 반주의 동시 연주  
 ③ 음악 이론    ④ 손가락 움직임 및 핑거링  
 ⑤ 악보 독해    ⑥ 코드

20. [교재 문제] 본인이 공부한 기타 교재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습니까?

- ① 체계적인 이론의 보완    ② 잘 아는 노래 및 신곡 보완  
 ③ 전주 간주를 포함한 상세(타브) 악보    ④ 웹과 연결된 시청각자료 보완(QR코드)  
 ⑤ 악보의 시인성 보완

21. [웹 활용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타를 배우거나 관련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활용한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없다    ⑤ 경험 없다

22. [웹 장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본인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양한 정보 습득이 용이 하다.  
 ③ 경제적이다.    ④ 체계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23. [타인 권장도] 기타를 배우는 것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② 권장하고 싶다    ③ 보통이다  
 ④ 권장하지 않는다                  ⑤ 전혀 권장하지 않는다

24. [권장 사유] 기타를 배우는 것을 타인에게 권장한다면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서 순화    ② 자기계발과 자아실현    ③ 여가 선용과 취미·특기 개발  
 ④ 음악지식 취득과 창의성 함양                  ⑤ 소통과 교감 활동 증진

25. 다음 장조코드를 초보 수준에서 배울 때 손가락 움직임이 쉽거나 편한 코드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 \_\_\_\_\_ )

- ① A    ② C    ③ D    ④ E    ⑤ F    ⑥ G

26. [배우고 싶은 내용] 지금 현재 기타를 배우고 있거나 초·중급 수준이라면 향후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 해 주세요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별 : ① 남    ② 여

나. 나이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다. 학력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⑤ 기타

라. 직업 :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자영업    ④ 공(전문)직    ⑤ 기타

마. 기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해당 되는 곳에 (√)해 주세요

① 강사    ② 동호회 활동    ③ 봉사 및 공연 활동    ④ 전문 기타리스트 활동

⑤ 음악 관련 산업 종사    ⑥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